

驗神用其終始暨平日而照四峻一德而明之認善

首庶物而統萬理其德又恭其德思推

民吾本其同不有誠何

持孝悌德之

一德

依前執

# 禮山文化院報

35 × 51 油紙本



既德使生

緇望雲而小癡許維寫而上下柯

煥爛燁其揚輝魚既得此中正簡

字疎誌其辨意塞於襟子舒卷

自昭漸於懷者所積人者相傳迄于今不

凡食底不

烏山縣·任存城·今勿縣

秋史金正喜公特輯

則而不

而則

## 秋史 誕辰 二百周年을 맞이하면서

丙寅年 새해가 밝아왔다.

今年歲歲 어느 元旦엔 새해를 맞는 感慨가 없을까마는 今年 우리 文化界에서 느끼는 元旦의 감회는 다른 어떤해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뭇 크고 벽차다. 今年이 秋史 金正喜(1786~1856) 先生 탄신 二百周年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先生께서는 바로 二百年 前인 朝鮮王朝 正祖 十年 丙午 六月 三日에 禮山 龍宮 鄉邸에서 고고의 聲을 터뜨리셨는데 이때 龍宮의 祖山인 八峰山의 草木이 시들고 後井의 물이 마르는 異變을 보여 八峰山 精氣를 타고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었다고 한다.

그 소문대로 先生께서는 弱冠의 나이에 이미 學藝 夙成하시어 國內外에 聲名을 떨치기 始作하셨고, 24 歲 때에는 各室副使가 되신 生父 西堂 金魯敬(1766~1838) 公을 수행하여 燕京에 가셔서 당시 淸나라 學藝界의 泰斗들인 翁方綱(1733~1818) 과 阮元(1764~1849) 같은 巨儒들과 節第關係를 맺어 그 學藝의 精髓를 계승해 오셨다. 그래서 장차 그를 집대성함으로써 學問的으로는 考證學의 門戶를 이 땅에 廣說하시어 實事求是의 實證의 學問 風土를 定着시키시었으며 藝術分野에서는 秋史體로 碑派書學의 理想을 구현하여 王羲之(307~365) 以後 千五百年의 帖學 傳統을 타파하셨다. 이로써 王羲之에게 올려졌던 書聖의 稱號는 당연히 先生께로 옮겨져야 하거늘 그동안 先生에 對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未遑之典으로 미루어두고 있었다. 다행히 最近에 先生에 對한 研究가 活發하게 進行되어 그 眞面目의 一部나마 제대로 把握할 수 있게 되었으니 탄신 二百周年을 맞는 올해에는 先生께 書聖의 稱號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先生의 業績을 기리는 紀念行事를 京鄕에서 각각 大대적으로 展開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先生께서 八峰山 精氣를 타고 태어나신 本鄕 禮山에서는 더더욱 學鄕의으로 先生의 誕辰 二百周年 紀念行事를 마련해야 할 터인데 아직 先生을 紀念하는 紀念館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다. 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나라의 文化 力量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本鄕의 鄕土文化 力量으로라도 마땅히 이를 성사시켜 本鄕에서의 紀念行事는 禮山의 秋史紀念館에서 치무어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이런 큰 바람이 어찌 한두 사람만의 것이겠는가. 우리 文化界 全體의 희망일 것이고 우리 民族 全體의 念願이라고 生覺한다. 그러니 今年 元旦에 느끼는 感慨가 크고 벽찰밖에 없다. 鄕土의 文化人들이시여 분발하십시오. 本鄕에서 出生하신 世界史의인 偉人을 기리는 일에 앞장서셔야 합니다.

丙寅 元旦

洞松美術館研究室長 崔 完 秀 敬拜

# 秋 史 頌

洪 凡 草

龍峰山 月宮마을 月城尉대에  
地靈이 應氣하여 잉태하기 스물넉달  
神童의 응아 소리에 샘물도 졸었다네.

儒家의 어린 君子로 經學에 뛰어났고  
峰岩寺 자주 가서 禪風도 익혔는데  
神氣서린 立春글씨에 宰相도 놀았다네

楚亭아래 열여섯 少年이 實學의 大家되어  
님의 손에 交流된 淸朝의 새 文化여  
燕京에 심은 墨緣 東方에 빛을 더했네

文科에 及第하여 兪判 大司成 올랐으나  
節義 곳곳하여 긴 귀향살이 살았어도  
耽羅에 學人을 모으고 北靑에 教化를 쫓네

逆境에 自適하여 激浪에도 詩를 읊고  
百家에 精通하여 學藝를 完成한 님  
書納於秋 奇怪한 書法 永遠한 秋史體여!

(詩)

寫眞 鄭 德 彩

新年揮毫 石峰 高 鳳 柱

正年

回

春



## 秋史 金正喜의 實學

李 佑 成

### 1. 秋史의 家系와 그 出生

本貫을 慶州로 한 秋史의 家系는 한다리 金氏로 이름난 家門이다. 한다리는 지금 忠南 瑞山郡 音岩面 大橋里로 秋史의 先祖 金換이 子孫世居之地로 삼았던 곳이다. 金換의 曹孫子 弘郁(1602~1654)을 거쳐 子孫이 크게 선정하여 많은 顯官達士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왕실과 直接姻戚을 맺어 위세를 누리게 되었다. 卽 弘郁의 長曾孫인 興慶은 領議政을 지내고 그 末子 漢養은 英祖 長女 和順翁主에 尙하여 月城尉에 被封됨으로써 王家의 內戚으로 戚福을 누리게 되었는데, 特히 和順翁主는 英祖가 가장 사랑하던 따님으로 月城尉家에 下嫁한 다음 賢婦良妻로 시부모의 奉養은 勿論, 男使의 公경을 여는 여열집 규수보다도 더욱 잘하여 王女의 귀감이 되던 분이였다. 그래서 英祖는 지금 忠南 禮山郡 新岩面 龍宮里 일대를 月城尉家에 別賜田으로 내리고 該道에 명하여 각 고을의 首令 方伯들이 協力하여 農幕을 짓게 하니 忠淸道 53郡縣이 각 1간씩 분담 建立함으로써 53간 집이 되었다고 할만큼 王家의 비호를 받았었다.

그런데 月城尉가 불과 39歲의 젊은 나이로 자식없이 요절하자 和順翁主 역시 14日동안 굶어서 남편의 뒤를 따라 殉死하였다. 이에 英祖는 食飮을 廢하리만큼 애통하여 역시 이들의 墓幕을 53간의 規模로 짓고 月城尉의 長兄 漢柏의 3子 頤柱로 뒤를 잇게 하여 國王의 外孫으로 淸要의 職을 거치게 하니 이의 諸子姪들이 차례로 登科하여 長子 魯永은 禮曹參判 次子 魯成은 水原判官 四子 魯敬은 吏曹判書에 각각 이르고 本生의 조카인 魯應도 兵曹判書에 이르게 된다.

秋史는 이와 같이 명문巨族인 慶州金氏 卽 한다리 金門 中에서도 王室의 姻戚으로 일찍부터 家門의 中心이 되어 왔던 月城尉家의 血統을 이어 받아 吏曹判書 魯敬의 長子로, 月城尉의 鄉第인 禮山 龍宮에서 태어났다.

天才 神童으로 알려진 그는 出生에 관한 傳說부터 신비로웠다. 그가 태어난 禮山의 鄉第인 龍宮의 後山은 비록 야산이지만 그 모양이 아담하고 典雅한데 이 산은 가야산 連峰의 南端인 八峰山(龍峰山이라고도 함)의 落隕이 떨어져 나와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그래서 秋史는 八峰山의 정기를 타고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俞氏가 秋史를 잉태한지 24個月만에 그를 낳았는데, 그가 出生하던 날인 正祖 10年(1786) 丙午 6月 3日에 後井의 물이 줄어들고 八峰山의 樹木이 모두 시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秋史는 나면서부터 八峰山의 정기를 타고난 비범한 사람으로 周邊의 촉망을 받았다. 과연 그 精氣說은 헛되지 않아서 아기 때부터 神童소리를 듣게 된다.

그가 6歲 되던 해에 立春帖을 써서 서울 壯洞에 있던 京邸인 月城尉宮 대

문에 붙인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北學의 旗手인 貞菴 朴齊家(1750~1815)가 지나다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일부러 그 아버지 西堂 金魯敬을 찾아보고 「이 아이가 장차 學問과 藝術으로써 크게 世上에 이름 날릴 것인데 내가 장차 잘 가르쳐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 7歲 때에도 역시 春書帖을 써서 다시 대문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正祖의 총애를 받아 오랫동안 領職政을 지내는 老宰相 巖岩 蔡濟恭(1720~1799)이 月城尉宮 門前에 자비를 멈추고 주인을 찾게 되었다. 본래 巖은 南人으로, 老論의 골수인 月城尉 집안과는 世嫌이 있어 서로 내왕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뜻밖에 재상의 신분으로 몸소 찾아오니 魯敬이 크게 놀라서 「閣下께서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니 「대문에 붙인 글씨는 누가 쓴 것이오」 하고 묻는다. 魯敬이 아들의 글씨라고 대답하자 濟恭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반드시 名筆로 世上에 이름을 드날릴 터이나 만약 글씨를 잘 쓰면 운명이 기구할 것이니 절대로 붓을 잡게 하지 마시오, 만약 문장으로 世上을 울리면 꼭 크게 귀하게 되리다」 라고 하였다.(大東奇聞卷四) 그는 벌써 成童未滿에 百家書에 달통하고 15歲 되던 해에는 어릴때 약속한대로 貞菴 朴齊家에게 나아가 배우게 되었다.(崔完秀氏 金秋史 評傳에 依함)

## 2. 秋史와 燕京學界

秋史는 純祖 9年 己巳(1809)에 生員試을 보아 合格하게 되는데, 이 해에 秋史에게는 영원히 기억할만한 기쁜 일이 겹쳐 일어난다. 卽 그의 生父인 魯敬이 戶曹參判으로 冬至兼謝恩使의 副使가 되어 燕京으로 가면서 그를 수행시키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스승 朴齊家로부터 귀에 짓게 들어온 화려한 燕京學界, 궁속에서까지 그려보던 그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이 24歲밖에 안된 청년 秋史를 얼마만큼 흥분케 하였겠는가. 더욱이 천재요 신동으로 自他가 공인하는 가운데 자라나서 이 땅에는 더불어 사귄만한 사람이 없다고 오기를 부리던 그로써 말로만 듣던 넓은 땅에 가서 못 재사들과 더불어 學藝를 겨루어보고 싶은 젊은 이다운 實勇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없는 즐거움으로 生父 魯敬을 따라 使行에 隨行하게 된다.

秋史가 朴齊家를 비롯한 많은 師友들을 통하여 燕京學界의 소식을 잘 알고 있듯이 燕京의 학자들도 朝鮮使臣으로 온 그들을 통해서 천재청년 金秋史의 이름을 들어 아는 이가 많았던 것 같다. 秋史는 곧 諸名流들과 面交하여 學緣을 맺는데 우선 靑年學者 曹江(字는 玉水 號는 石籟)과 사귀고 다시 이를 통해 점차 많은 大家들을 歷訪하여 面學討論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그가 제일 먼저 찾아 뵈기를 청한 것은 스승 朴齊亭이 魯敬해마지 않던 翁方綱(1733~1818)이었다. 翁方綱은 字를 正三, 號를 賈溪 혹은 彝

齊라 하는데, 벼슬이 鴻臚寺卿에 이르고 당시 燕京學界의 耆宿으로 金石學의 研究에 精深하여 독자적인 門戶를 열고 있었다.

그의 문하에서는 경쟁한 석학들이 계속 배출되어 學派의 기치가 매우 선명하였다.

秋史는 그가 25세 되는 세월에 燕京에 머물면서 그동안 親交를 맺은 翁方綱의 문인 徐松의 추천으로 翁方綱과의 면회에 성공하게 된다. 翁賈溪는 이미 78세의 高齡으로 학계의 원로인 고로 함부로 外人을 만나지 않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異國 青年學徒의 간청을 물리칠수는 없었던듯 만나줄 것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시각은 이른 아집인 卯時(5~7세)로 定하여 그의 정성을 試驗하였던 듯하니 徐松이 秋史에게 면회 허락을 알린 書札에 「翁賈溪先生에서 한번 보실 수는 있다고하시나 다만, 卯刻으로 時間을 정하시니 내일 아침 일찍이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內容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富大한 몸집에 지독한 近視로 뚝수눈은 안경을 쓰고 있던 80쪽 노대 학자는 귀여운 얼굴을 가진 短軀精悍한 異國青年 秋史와 筆談을 통하여 對話를 始作하면서부터 어느덧 기백에 넘치는 학구열과 걸림이 없는 해박한 지식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려들기 始作하였다.

그래서, 「동쪽 나라에도 이렇게 영특한 사람이 있었던가」라고 감탄하면서 經術文章 海東 第一이라고 극석에서 揮毫하여 그 資格을 認定하고 이 青年이면 자신의 學統을 전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秋史는 「圖書文籍이 구슬같이 꽃혀 있으니 그 방에 올라가면 마치 만가지 꽃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아서 精神을 차릴 수 없고 눈이 어쩔거려 談論할 겨를도 없게 한다.」라고 할만큼 소문난 翁方綱의 書齋인 石墨書樓에 무상출입하면서 老大家의 사랑속에서 정성어린 가르침을 받게 된다.

우선 翁方綱은 이 사랑스런 젊은 제자를 단기학습시켜 自身의 平生업적인 金石學을 전수해주자면 무엇보다도 金石眞蹟을 많이 보게하여 鑑識眼을 갖추게 하는 일이라 生覺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自身의 秘藏인 여러가지 珍品들을 내보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여 가르쳤다.

中國의 大家들일지라도 일찌기 접해보지 못하였던 金石眞蹟들을 마음껏 飽賞한 秋史는 용솟음쳐 올라오는 새 지식과 새 學問에 대한 환희와 정열을 억제할수 없었고, 一字一劃이라도 법면히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한편 秋史는 石墨書樓의 出入中에 翁方綱의 제자 및 그 자제들과도 親交를 맺는다. 특히 翁方綱의 두 아들인 樹培(1764~1811)와 樹岷(1786~1815)兄弟는 秋史에게 血肉과 같은 정으로 曲盡한 정성을 베풀었다.

이 외에 賈溪 제자로 인연을 맺은 사람은 吳嵩梁(1766~1834), 朱鶴年(1760~1834)등인데 翁賈溪의 首弟子인 吳嵩梁(字는 蘭雪)은 秋史의 부친 西堂과 동갑으로 西堂이 次子인 命喜를 수행시켜 두번째 使臣으로 燕京에 가서

(1822) 더욱 친해진 이래 피차에 書信 왕래와 書畫金石資料는 勿論 서적등의 贈物이 끊이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朱鶴年은(號는 野雲) 俠氣있는 寒士로 당시 畫壇을 주름잡던 文人 畫家였다. 石墨書樓에서 秋史와 만나 一見後에 의기가 상통하여 스스로 그린 많은 그림을 秋史에게 기증하고 피차의 生日에는 서로 술을 뿌려 기억하자고 약속하는 정깊은 사이가 되었다.

翁方綱 다음으로 秋史가 심취하던 사람은 阮元은 字가 伯元, 號를 藝臺 혹은 雲臺라 하였는데, 벼슬이 體仁閣大學士, 太子太保에까지 이르렀던 大官이며 考證學의 태두로 經學과 金石學에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秋史가 燕京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침 그는 妻家人 衍聖公邸(孔子의 宗孫家)에 寄留하고 있었는데, 秋史가 그를 찾자 47歲의 壯年學者로 威名이 天下에 떨치던 巨人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이끌어 자신의 書齋인 泰華雙碑之館으로 맞아들이고 天下의 희귀품인 龍團 勝雪茶를 待接하며, 自身의 珍藏金石資料를 비롯한 自家 著術의 많은 經學 金石學 관계 書冊 및 詩文集등을 보여주고 기증하는 등 각별한 정의를 가지고 款待教導하였다.

이밖에도 李鼎元(字는 和叔, 號는 墨莊), 李林松(號는 心庵), 金光祥(字는 汝恭, 號는 蘭畦), 金喜(號는 宜園), 金勇(號는 近園), 洪占結(號는 介亭 등) 많은 名流들과 사귀어, 혹은 金石으로 또는 詩文으로 心琴을 뜨고 또는 經史로 共鳴하며 乃至 書畫로 相合하여 비록 두어달의 짧은 期間이었지만 과연 「서로 위해 죽음이만큼」 敦篤한 정의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秋史가 장차 歸國을 서두르게 되자 그 사이 친교를 맺었던 師友들은 석별을 아쉬워하는 조촐한 送別宴을 한적한 山亭에 마련하였던 듯하니, 朱野雲의 「送別宴圖」와 李林松의 送別詩로 엮어진 送別冊으로 그 당시의 아름다운 정경을 짐작할 수가 있다.(崔完秀氏 金秋史 評傳에 依함.)

## 實 事 求 是 學

### (7) 秋史의 學問態度

第1期の 經世致用學이나 第2期の 利用厚生學을 거쳐 第3期の 實事求是學 即, 秋史時代에 이르러서는 實學의 性格이 상당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秋史에 대해서 우리가 注目을 요하는 것은 종래의 實學의 思想性과 社會改革의 情熱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反面, 先行 實學者들의 實證的 研究方法을 계승하는 동시에 밖으로 淸朝의 考證學을 虛心坦懷하게 攝取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實事求是의 新로운 經學 乃至 經學觀을 樹立하였고, 나아가 우리 民族文化에의 沈潛을 통해서 主體的 認識을 鮮明히 하고 金石 典故등에 對한 格調 높은 學問性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實事求是派의 特色은 學問 그 自體가 目的이며 嚴格한 客觀的 態度로써 事實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自己의 政治社會의 理念을 念頭에 두고 古典을 主觀的으로 引用 解釋하던 先行 實學 實學者들과는 매우 다른 바가 있는 것이다.



## ( 1 ) 秋史의 經學과 그 特徵

첫째로 秋史의 經學은 漢學과 宋學의 折衷主義이다.

李朝建國以來 朱子學이 官學化되어 거의 絶對의 存在로 思想界를 支配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漢學 宋學등의 名稱조차 없었다. 實學時代에 들어오면서 차차 달라져 왔지만 朱子學을 絶對의 地位로부터 相對의인 것으로 끌어내리고 漢學 宋學을 對照시켜 長短點을 說明한 것은 秋史가 처음이었다. 우선 秋史는 學術辨을 써서 學術은 時代에 따라 變遷하는 것이라고 說破하고 中國에 있어서의 經學의 變遷을 歷史的으로 詳細히 說明하는 한편 朱子學, 宋學至上主義인 당시 風土위에 漢學의 價値를 크게 揭揚하여 一般 學者들에게 思想的 啓蒙을 推進하였다. 그러나, 秋史는 淸朝 學者들과 같이 漢學 一邊倒에 빠지지 않고 宋學의 肯定的 意義를 再評價할 것을 잊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實事求是說」의 骨子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理由를 생각할만도 하다. 하나는 秋史가 宋學至上主義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理由이고, 하나는 당시 中國에서도 漢宋을 溝通하려는 努力이 學者들 사이에 일고 있었다는 理由이다. 秋史와 關係가 깊었던 阮元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둘째로, 秋史의 經學은 「今文學」을 주로 하였다. 원래 古文學은 訓詁에 重點을 두어왔었지만 今文學은 微言大義를 發見하기에 힘쓰고 뒤에는 淸末의 變法運動과 結付되어 進歩的 役割을 擔當하게 된 것이다. 秋史는 淸朝 考證學의 學問的 成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차차 古文學에서 今文學으로 注意를 돌려 魏源과 같은 學者의 學問을 참다운 實事求是로 認定함과 同時에 『海國圖志』를 必需之書로 찬양하면서 특히 그중의 海防關係籌劃이 우리 李忠武公과 一致한다고 해서 歎歎해마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당시 우리나라 沿岸에 出沒하는 洋船과 漸高해가는 國民의 不安에 대해 깊이 관심을 表明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國民의 主體의 姿勢의 確立이 必要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今文之家』라는 圖章을 愛用하기도 했던 秋史의 今文學은 그의 思想의 進歩的 側面을 한층 더 發展시켜 經學에서 哲學으로 轉換할 수 있는 可能性을內包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당시의 政治的 社會的 條件은 그에게 너무나 여러 가지 制約을 加해서 甞경 그로 하여금 墨香과 書味의 世界속에 自己를 解消시키고 말게 했던 것이다.

秋史의 經學이 그 자신의 限界 때문에, 그리고 그 後繼者중에 康有爲와 같은 人物이 나오지 않아 그의 今文學이 우리나라의 近代指向의 歷史行程속에 커다란 貢獻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秋史는 李尙迪, 吳慶錫등 中人出身의 人材들과 交遊하고 또 그들을 指導해서 一定한 思想의 影響을 줌으로써 지금까지의 兩班層의 實學思想을 中人層으로 넘어가게 하였고 이 中人들은 다음날 開化運動의 側面工作者로 活動함으로써 實學思想과 開化思想을 連結짓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던 것이다.

( 成大教授 )

## 秋史의 學問과 藝術

### 1. 學問의 世界

崔 完 秀

秋史가 낳던 時代는 朝鮮 王朝의 절대 理念인 성리학이 根本을 상실함으로  
 써 現實과 유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學問 자체가 공허하게 되어 學者들은 다만  
 지엽 末端을 다루게 되었으니, 노론의 내부에서 일어난 湖流의 시비도 이 범주  
 를 벗어나지 못하여 한갓 공론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일부 성리학도들 (특  
 히 南人 계열)은 성리학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실학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  
 렸으나 북학과를 중심으로한 혁신 세력들은 전통 성리학 자체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보이었다.

北學은 곧 清朝를 풍미하던 고증학풍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여서는  
 운동은 대체로 영조 40년 (1764)경부터 담헌 洪大容 (1731~1786)과 燕巖 朴  
 趾源 (1737~1805) 등 使行을 따라 燕京을 다녀온 世家 자제들에 의해서 주창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학이 본래에도 오르는 것은 연암의 제자들로서 정조  
 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靑莊館 李德懋 (1741~1793)·冷齋 柳得恭 (1748~  
 ?)·楚亭 朴齊家 (1750~1815)·강산 李書九 (1754~1805)·金陵 南公敏  
 (1760~1840)과 같은 사람들에 이르러서인바 이들은 주로 정조 원년 (1777)  
 에 설치되는 왕립 학술 기관인 奎章閣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박제가는 일찌기 (北學議) 1책을 저술하여 북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등 북  
 학에 가장 열렬하였는데, 추사는 바로 이 열렬 북학파인 박제가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학문 방향은 자연히 애초부터 새로운 청조 고증학 쪽으로  
 기울어져서 꺾점만 남은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은 안중에도 없게 되었다. 그  
 래서 항상 청나라에 가서 본격적인 고증학에 접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생부 노경이 순조 9년 (1809)에 冬至兼謝恩使의 副使로 연경에 가게 되어 약  
 관 24세의 청년인 추사는 이에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추사가 스승인 박제가로부터 이미 청나라 학계에 관하여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주 연경을 내왕한 師友들을 통해서 그의 재주도 연경  
 학자 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의 청년 학자인 曹江이 추사가 사신에 수행하여 왔다는 말을 들  
 고 「동쪽 나라에 김정희 선생이란 분이 있으니 자 (호의 잘못)는 추사이다.

나이 이제 24살인데 慨然히 사방으로 찾아다닐 뜻이 있어서  
 일찌기 시를지어 말하기를 『개연히 한 생각 일으키니 四海에 知己를

맏고져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찾지만 하면 귀해서 한번 죽기도 하련만 하늘 끝 저쪽엔 名士가 많다니 부러움을 홀로 주게 못하네』라고 하였다 하니, 그 趣向을 가히 알 수 있다.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글을 꾸며 짓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도 잘 짓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한다. 지극히 중국을 그리워하여 동쪽 나라에는 사귄 만한 선비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사실을 따라 왔으니 장차 천하의 명사들과 사귀어 옛사람들이 情誼를 위해 죽던 의리를 본받으려 한다고 한다』라고 하여 그의 입국을 반기어 학계에 소개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비록 몇 달에 지나지 않는 짧은 동안을 (1809년 10월에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해 3월에 서울에 돌아온다.) 연경에 체류하지만 연경 학계의 많은 저명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질 수 있었으며, 翁方綱(1733~1818)과 阮元(1764~1849) 같은 巨儒에게 면학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연경 학계는 고증학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 점차 난숙해 가던 형편이어서 종래 經學의 보조 학문으로(고증학의 기본은 유교 경전의 연구인 경학에 있었다.) 존재하였던 金石學·史學·文字學·音韻學·天算學·地理學등의 학문이 각기 독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석학은 문자학과 書道史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대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심 인물이 옹방강과 완원이었다. 따라서 추사는 고증학의 骨隨인 경학은 물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특히 이제 새로 크게 문호를 연 금석학에 있어서는 翁·阮으로부터 거의 충격적인 감화를 받고 돌아온다. 그래서 귀국 후에는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고 금석 자료의 搜探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니 그 길과 北漢山巡狩碑를 발견해 내고(禮堂金石過眼錄)(眞興二碑攷)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저술을 남기게 되었으며, 황초령 순수비·북한산순수비·鑿巖寺碑등의 보호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업적을 보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석학과 서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우리 금석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학을 지도하여 이른바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시켰었으니 그 대표적인 학자들로 申緯(1769~1845)·趙寅永(1782~1852)·權敦仁(1783~1859)·金泊根(1785~1840)·李祖默(1792~1840)·尹定鉉(1793~1874)·申觀浩(현: 1811~1888)·趙冕鎬·李尙迪(1804~1865)·田琦(1825~1854)·吳慶錫(1831~1879)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이들 이름에서 추사와 동년배들은 거의 世家 자제로 大官을 지낸 사람들이고, 뒤로 내려오면 장차 조선 말기의 새 세력으로 등장하는 譯官 계통의 中人 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거의 開化派의 선구가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추사의 경학은 옹방강이 書札을 통해서 그를 衣鉢 제자로 인가한 것과

같이, 웅방강의 「한송불분론」을 근본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이는 한대의 訓詁學과 송대의 성리학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절충론으로 漢學을 추승하고 宋明 理學을 배격하던 청대의 정통 고증학이 극도로 발전하여 澆弊를 낳게 된 결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新說이었다. 그런데 비록 조선은 그 발전 단계에 있어서 한학시대의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송의 성리학에만 오래 몰두해 있던 끝이라서 고증학을 이해하는데 이 절충론이 한학 위주의 정통 경학 쪽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사도 웅방강의 학설에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청조 경학의 정통을 이어 經世致用을 주장한 완원의 학설과 방법론도 추사의 경학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니, 그의 경학관을 요약하여 천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實事求是說)에 이 양대 거구의 영향이 끌고루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추사는 웅방강이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던 戴震(1723~1777)이나 凌廷堪(1757~1809) 등의 학설에도 자못 심취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논설을 抄錄하여 참고하였거나 전면 인용한 사실을 우리는 그의 문집에서 발견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사는 顧炎武(1613~1682)·毛奇齡(1623~1716)·주이존(1629~1709)·胡渭(1633~1714)·梅文鼎(1633~1721)·王士禛(1634~1711)·염약거(1636~1704)·全祖望(1705~1755)·王鳴盛(1722~1798)·趙翼(1727~1814)·錢大昕(1728~1804)·요네(1732~1815)·段玉裁(1735~1815)·崔述(1740~1816)·王念孫(1744~1832)·劉台拱(1751~1805)·張惠言(1761~1802)·王引之(1766~1834) 등 청대 학술의 巨擘들에 관해서도 그들의 학설을 博覽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를 소화하고 있었던 듯하니 그의 장서 목록이나 교우 간의 왕복 서간 및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학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외에 음운학과 천문학·사학·지리학 등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문집에 수록된 한두 편의 논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히 西域의 지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는 연경에서 천교를 맺은 서역 지리 전문가인 徐松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겠지. 당시 우리 近海에 자주 출몰하기 시작하는 異樣船의 震源을 탐지하려는 학구적인 욕망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이미 추사는 魏源(1793~1856)의 《海國圖志》를 읽고 있었으므로 당시 중국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리에 대한 식견에는 뒤지지 않고 있는 듯이다.

다음에 추사 학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佛敎學이다. 불교는 조선왕조 오백 년 동안에 사대부들에게 禁忌의 학문이었다. 그러나 巨儒들의 경우에는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과 世族들은 陵墓의 주변에 造泡寺란 명목으로 廟刹을 가지고 있었다. 추사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조인 영의정 홍경과, 증조인 율성위 夫

婦 등의 묘소가 있는 禮山 龍山의 鄉邸 경내에 華嚴寺라는 원찰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는 어려서부터 승려들과 교류하여 불교 신앙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위에 박제가와 같이 성리학의 고루한 형식적 테두리를 벗어난 스승에게 배우게 됨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금기가 무의미한 것을 통감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학문적인 지식욕에 의해서 佛典을 섭렵하게 되고 청나라 학계의 자유로운 학문 연구 분위기를 체험하고 나서는 거리낌없이 불교의 연구에 심취하였던 듯이다.

한편 18세기 中末期로부터 불교계에서도 성리학의 퇴폐와 북학과의 활동등 시대 사조의 변천에 발맞추어 오랜 침체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華嚴學이 크게 일어나 禪 일변도의 조선적 침체상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 이화엄 학풍은 본디 浮休(1543~1615)계와 西山(1520~1604)계의 몇몇 學僧들에 의해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觀羊의 法孫인 喚惺 志安(1664~1729)에 이르러서 크게 그 宗風을 드날리기 시작하니, 이후에 특히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大德들이 배출되어 佛敎思潮를 일신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운은 추사가나는 시기를 전후하여 한껏 고조되니, 大華嚴宗匠으로 꼽히는 雪坡 尙彦(1707~1791)·蓬溪 有一(1720~1799)·影波 聖全(1728~1812)·熬庵 最訥(1722~1795)·仁巖 義沼(1746~1796)·海鵬 慶翎(?~1826)·白坡 巨瓊(1762~1852)·草衣 意恂(1786~1866) 등등이 쏟아져 나온다. 추사는 이들 巨匠들이나 그 法資들과 모두 친교를 맺어 두루 交遊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특히 白坡와 草衣가 추사의 불교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백파는 추사보다 19세 연장으로 白羊山 雲門庵과 靈龜山 龜巖寺에서 禪講法會를 열고 禪風·講風·律風을 아울러 드날리던 大宗師이었다. 그리고 초의는 추사와 동갑으로 일찍이 茶山 丁若鏞이 康津에 謫居하여 있을 때 그에게서 유교 경전을 비롯한 제반 학문을 배워 內外典은 물론 시·서·화 및 茶道에까지 博通하였던 學藝僧이었다. 일찍이 그는 서울 주변을 편력할 때 추사와 만나서 서로 마음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추사가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된 후에는 海南 大興寺에 있으면서 내왕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직접 配所를 찾아가고 혹은 서신을 교환하면서 禪理와 文藝 및 茶道로 더욱 交情을 두터이하였다. 그래서 추사는 배소에서 초의를 통해 70년 수도를 자부하는 백파와 老長과 선리를 왕복 토론하게 된다. 이는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老大德과 일세의 通儒로 추앙받던 대학자와의 논쟁으로, 서로 일본도 양보하지 않는 치열한 것이었는데 이 속에서 추사의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고증학자로서의 안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추사는 (華嚴經) (法華經) (楞嚴經) (金剛經) (圓覺經) 등등 諸經은 물론 각종 論疏 및 書狀 語錄 등을 널리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傳記·僧史

류도 빠짐없이 읽고 고증학적인 안목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우기 漢譯 經典의 불완전성을 譯經의 과정에서부터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온 것은 과연 조선 고증학계의 태斗로서 손색이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추사는 당대의 禪僧 講伯들로부터 普知識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듯하니, 그 문집에 보이는 많은 승려들과의 왕복 서간 및 影頌의 題跋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사의 학문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루 박통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海東第一通儒의 美稱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도 자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당시의 동년배로부터 후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쳐서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풍을 일신시키는 감이 있는데, 특히 자신이 훈척 가문 출신의 최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급을 초월하여 중인 계층 사람들을 많이 濟接함으로써 學統을 이들에게 전하는 느낌이 강한 것은 분명히 새 시대의 전개를 모색한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 2. 藝術의 境地

추사가 7세 시(1792)에 立春帖을 써서 대문에 붙였더니 老宰相인 卍翁 蔡濟恭(1720~1799)이 지나다 보고, 대대로 좋지 않게 지내는 집안인 것을 알고도 특별히 찾아 들어가서 추사의 부친인 魯敬에게 대문의 글씨를 쓴 사람을 묻고, 『이 아이가 반드시 명필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 터인데 그러면 팔자가 사나울 터이니 붓을 잡지 못하게 하는게 좋겠으며, 만약 문장으로 세상을 울린다면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추사는 글씨로 세상에 크게 이름을 드날렸으며 그의 老年은 매우 비참하였었다.』는 이야기가 高宗 때 관서를 지냈으며 추사가 말년에 매우 귀여워하여 직접 지도하였던 再從孫 台濟의 말로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비록 定數論의 신비한 색채가 농후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으나 적어도 추사가 학자로 보다는 서예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의 예술적 재능이 천품으로 타고났었던 사실을 전해주는 자료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당시 북학파들은 연경 학계의 영향으로 시·서·화에 대한 교양을 필수 德目으로 여기어 이의 수련에 골몰하였으니 특히 박계가와 같은 사람은 청나라 일류의 감식안이며 시·서·화에 능하였던 紀昀(1724~1805)·翁方綱(1733~1818)·鐵保(?~1824)·伊秉綬(1754~1815) 등이나 일급 화가에 속하는 羅聘(1733~1799)·張問陶(1760~1814)·張道瀾 등과 깊이 사귀어 안목을 넓이였으며, 스스로도 시·서·화의 각 분야에 상당한 기량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의 천재적인 예술성은 스승박계가에 의해서 일찍부터 啓發될 수 있었

을 터이니 그의 才名이 20 세 전후에 국내외에 떨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듯하다.

그러나 추사 예술이 본래도에 오르는 것은 역시 그가 연경에 가서 諸名流들과 교류하여 배우고 많은 眞蹟을 감상함으로써 안목을 일신한 다음부터이었다. 그는 우선 용방강과 완원을 찾아가서 金石文의 감식법과 書道史 및 書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고 서예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게 되었으니 용방강의 石渠書譜에서의 강론이나, 완원의 泰和雙碑之館에서의 茶話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추사는 이때의 사경을 (朴憲百이 글씨를 묻는 것에 답함)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밝혀 말하고 있다.

「나는 어리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는데 스물 네 살에 연경에 가서 여러 이름난 큰 선비들을 뵈고 그 서본을 들으니 『撥燈法이 입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째가는 의미가 되며 손가락 쓰는 법, 붓 쓰는 법, 먹 쓰는 법으로 부터 줄을 나누고 자리를 잡는 것 및 과나·파 등의 점과 획 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쪽 나라 사람들이 익히던 바와는 크게 다르고 漢魏 이래 금석 문자가 수천 종이 되어 鍾이나 索綯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반드시 北碑를 많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비로소 그 처음부터 변천되어 온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추사는 당시 연경 학계에서 금석·서도 및 감식의 제일인자로 손꼽히던 스승 용방강의 書體를 따라 배우면서 점차 역대 금석 拓本과 각종 法帖을 힘써 수집하여 연구함으로써 용방강 서체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 趙松雪·蘇東坡·顔眞卿 등의 諸體를 익힐 수 있었으며, 다시 더 소급하여 한위시대의 여러 隸書體에 서도의 근본이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본방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漢隸의 장점을 모아 스스로 한 길을 터득하여 내었으니 이것이 바로 종마 勝高한 추사체이다. 이는 胸中에 萬卷書를 담고 팔뚝 아래 三百九碑 (<漢隸字原>에 수록된 漢碑의 총수)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말과 같이, 타고난 천중으로 무한한 단련을 거쳐서 이룩한 고도의 觀念美의 창설로, 여기에는 일정한 범식에 구애되지 않는 범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 초탈한 범식은 역시 가장 일반적인 전통 서법을 충실하게 익힌 다음에 그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니, 그의 문집에서 보이는 많은 글들 속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자살한 서법의 지도와 正道에서 벗어난 書家에 대한 준열한 비판들이 이를 말해 준다.

한편 詩道에 대해서도 추사는 당시 고종학과 특히 용방강파에서 그러했듯이 철저한 正道의 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錢載·용방강·薛士銓으로부터 王士禛·주이준·查慎行(1650~1727)을 거쳐 元好問(1190~1257)·우징(1272~1348)에 이르고, 다시 蘇軾(1036~1101)과 黃庭堅(1045~1105)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杜甫(712~770)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詩道의 정풍으로 삼고 이

들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시·서·화 일치의 문인 취미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림에서도 書卷氣와 문자향을 주장하여 기법보다는 心意를 존중하는 文人畫風이 있었는데, 옹방강 학파에서 특히 이와 같은 문인화풍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 역시 이러한 문인화풍에 매우 철저하였으니 마치 隸書를 쓰듯이 筆墨의 아름다움을 주로 하여 枯淡하고 簡潔한 筆線으로 心意를 노출하는 文氣 있는 그림을 그리었다.

특히 그는 蘭을 잘 쳤는데 항상 난 치는 법을 隸書 쓰는 법에 비겨 말하고 문자향이나 서린기가 있는 연<sup>2</sup>에야 그것을 할 수 있으며 畫法을 따라 배워서 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 商佑에게 曹允亨(1725~?) 이나 俞漢芝(1760~?)가 예서 쓰는 법은 터득하였지만 문자기가 부족하여 글씨가 안되듯이, 趙熙龍도 문자기 없이 화법만 따라 배우니 난초가 처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즉 그의 書畫觀은 가슴속에 清高 古雅한 뜻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文字香과 書卷氣에 부르짖어 손끝에 피어나야 한다는 至高한 理念美의 구현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감식안도 이와 같은 고답적인 문인 취미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전 작품으로 다만 李麟祥(1710~1760)의 서화 만을 인정하였고, 후진의 작품으로는 大院君 李熙(1820~1898)의 난초와 小廝許維(1809~1892)의 山水나 申觀浩(1810~1888)의 예서 정도를 인정하였을뿐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宋 이후에는 다만 소식·황정건·미불(1051~1107)·조맹부(1254~1322)·沈周(1427~1509)·文徵明(1470~1559)·董其昌(1555~1630) 등으로 이어지는 정통 文士들의 글씨이거나 元 四대가 이후의 동기창·王冕(1335~1407)·王時敏(1592~1680)·王原祈(1642~1715)·왕 위(1632~1726)·陳元素·白丁·석도 고기패(?~1734)·鄭燠(1691~1764)·주유한 나빙(1733~1799)·張道瀾 등등의 문인 화가를 꼽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감식안은 매우 폭넓은 것이었으니 현재 문집에 남아 있는 내용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서도에서는 先奏石鼓文으로부터 奏刻·漢隸·魏記·唐·宋帖·明清書에 이르기까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그림에서는 청나라 때 작품은 그만두고 명 이전 것으로만도 鄭思肖·趙孟堅·조맹부(1254~1322)·黃公望(1269~1354)·吳鎮(1280~1354)·예찬(1301~1374)·王蒙(1309~1385)·심주·동기창·문징명·李流芳(1575~1629)·劉珏등의 작품을 논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그가 연경에 갔을 때 잠시 감상한 것도 없지 않았으나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가 구입 收藏하였던 것도 적지 않았던 듯 하니 그가 옹방강 문인인 설지선(1779~1862)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현재 안



러진 것만도 수백 점에 달하는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그 예로 현재 알려진  
 설씨의 서간에 附記된 物目중 畫蹟에 관한 것만 대강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吳梅村先生山水 王蓬心先生 산수, 장청담학사 花卉, 高且圃 指畫, 元人 花卉  
 山水直屏合錦, 汪文端 沈石田 字畫合錦, 董文恪 秋林晚照直屏, 文待詔 蘭竹橫  
 幅, 錢文敏 화해칭복, 羅兩峰 畫一册, 席史 화一軸, 董(香光) 書畫合錦一軸,  
 張宋 書畫屏一張, 유공보 荷花一張, 明人 岳陽樓圖

여기서 우리는 추사의 장식안이 폭넓고 정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당시 藝苑에서 절대 숭복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추사의 이와 같이 차린 높은 창조 문인풍의 감상안은 종래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길러져 왔던 조선 고유의 國書·國畫風에 대하여는 지  
 극히 비판적일 수 밖에 없었으나, 眞樞李匡師의 書法과 書論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논리 정연한 그의 新書畫論과 拙樸淸高  
 한 書畫法은 왕조 후기의 예원을 풍미하여, 당시 이후의 서화가로 추사를 흉  
 내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유행을 보았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고유의 국서풍과 국화풍은 일조에 뒷서리를 맞고 시들어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린 높은 문인풍의 이념미는 학문적인 뒷받침 없이 누구  
 나 표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이미 추사 자신이 누누이 이야기한 바이다.  
 그런데 당시의 고종학은 아직 그의 수운을 뒤따를 만큼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  
 다. 그래서 그를 따라 배운 서화가의 대부분은 내용 없는 形寫에 그치고 있었  
 는데, 갑자기 서구 문명의 소용돌이가 밀려들게 되자 조선 말기의 서화계는 일  
 시에 침체되어 내용도 개성도 없는 중국풍의 범본에 급급하다가 서구 감각의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된 것이다.

그의 예술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큰 부분은 전각이다. 전각이 단순한  
 印信의 의미를 뛰어넘어 예술의 한 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명나라 중  
 기부터이니, 文徵明의 아들인 文彭(1498~1573)과 그 제자 何震에 의해서이  
 다. 이들의 문하에서 다시 흡삼가니 西泠八家로 불리어지는 전각가들이 줄을 이  
 어 나오게 되었으나 청대의 碑派書道가 낳은 鄧石如(1743~1805)에 이르러서  
 크게 면목을 일신한다. 등시는 漢印의 刻風을 본받아서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각풍을 일으키었는데 추사 당시에는 이 등서풍이 연경 전각계를 풍미하고 있  
 었다. 그런데 추사의 생부 노경이 2차로 사신을 갔을 때 이 鄧完白의 아들인  
 鄧傳密과 친교를 맺어 전말이 그 부친 완백의 비문을 노경에게 부탁할 만큼가  
 가까운 사이가 되었었다. 그래서 추사는 등완백의 전각에 친밀하게 접할 수가 있  
 었다. 뿐만 아니라 吳嵩梁이나 阮常生 등과 같은 학자들로부터 자신의 印刻을  
 새겨 받음으로써 당시 청나라 전각풍에 두루 통할 수가 있었고 또한古印의 印  
 譜를 구득하여 직접 奏漢 고인의 實影을 본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의 전각 수

준은 청나라의 그것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래서 추사는 그의 別號가 많은 만큼이나 많은 전각을 하고 이를 서화의 落款에 쓰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등서풍 내지 서행팔가풍이 강하나 점차 추사체가 확립되어 나감에 따라 독특한 自刻風 즉 추사각풍을 이룩하여 특유의 종박 청수한 특징을 남김없이 드러내게 되었다. 이로써 추사는 시·서·화에 三絶일 뿐만 아니라 서·화·전각 사절로도 손색이 없게 되니 가위 조선 후기가 낳은 천재적인 예술가라 할 수밖에 없다.

## ◆ 結 語

추사는 후기 조선 왕조가 낳은 대학자이며 대예술가이다. 즉 그는 조선왕조의 치국 이념인 조선 성리학이 말미 현상을 노정하여 새로운 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나서, 신문화의 지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난숙하게 발달한 고증학을 받아들여 이땅에 정착시킴으로써 새 시대의 전개를 모색한 선각자이었다.

그래서 그의 학문 내용은 당시의 청조 고증학이 그러했듯이 경학·금석학·문자학·사학·지리학·天算學·음운학 등 여러 분야에 두루 통달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특히 금석학의 연구에 精深하여 書道史 연구와 더불어 일가를 이루어 조선 금석학과를 성립시켰었다.

그리고 경학에 있어서는 용방강의 「漢宋不分論」에 근본적으로 공감하여 성리학과 훈고학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절충론을 부르짖음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극단적인 획일주의에 방향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불교학에도 정통하여 당시 새로운 면목을 보이던 華嚴學派들과의 빈번한 접촉과 논쟁으로 새 시대의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그의 해박한 불교 지식은 白坡와 같은 당시의 善知識도 무색할 만하였다.

그래서 추사의 한문은 이후 학계에 상당히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조선 말기에 새 세력으로 등장하는 증인 계층이 그의 學統을 이어 장차 개화 세력으로 성장하여 나가는 느낌이 짙다.

그러나, 추사는 학자이기 이전에 타고난 예술가이었다. 그런데 그가 접했던 청조 고증학은 난숙할 대로 난숙해 있어서 문인 취미가 한껏 고조되어 있어서 시·서·화에 대한 감식과 수련을 문사의 필수 교양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의 예술적 천품은 여기서 크게 빛을 발하여 시·서·화는 물론 전각에까지도 독자적인 일문을 열게 되었으니 소위 추사체의 완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시·서·화 일치 사상에 입각한 고답적인 理念味의 구현으로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조 고증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그래서 종래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보인 조선 고유의 國畫·國畫風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바로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에 대한 그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의 예술은 그 전파성이 학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振幅으로 조선 藝苑을 석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학문이었던 청조 고증학이 진원지인 중국에서부터 미구에 서구 문명에 밀려나는 세계 정세의 대변혁이 뒤따르고 있었으니, 우리의 경우도 그의 新思想이 이땅에 토착화할 기틀이 없이 서구 문명에 휩쓸려들게 되었다. 따라서 그를 추종하여 앞서 가던 조선의 예원은 뒷받침해 주어야 할 사상적 근거를 잃고 다만 외형적인 중국풍의 표현 형식에만 매달렸으니, 오히려 추사는 독자적으로 자라온 조선 고유 예술의 단절시키고 조선 예술을 내용 없는 중국풍의 아류로 전락시켜, 밀려드는 일본풍에 맥없이 휘말려들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추사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을 것이니,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그의 예상을 앞질러 간 데서 빚어진 逆現象으로 생각하고 싶다.

(崔完秀譯 秋史集 一玄岩社刊 - 評說에서)

# 室下樹梅萬十三

(室下樹梅萬十三)

# 屋書溪樗

(屋書溪樗)

(詩)

新年頌

石菴 朴昌植

새해 /

새아침 /

뛰는 가슴 설네는 마음으로

地軸 에 두발 딛고 .

굿세게 섰노라

丑과 寅의 뒤안길에서

아무것도 뜻 세운일 없아옴전만

새해를 맞는 마음과 마음

말없는 祝福을 주고 받노라

한없는 기쁨이 오고 갔노라

본디 우리들

羊가치 최고

거울같이 맑은 心性으로

千年을 하루같이

平行線 그으며 조용히 살아온 百姓

太古로 부터  
하늘은 활짝 열리면  
鷄鳴聲 은은히 울려 퍼지고.  
東域하늘 불끈 솟는 힘찬 햇살에  
너와나의 벅찬 승결  
無數한 事緣으로 메아리 치던날

아! 어찌하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아침이 밝아왔구나  
祝福받은 이날이여!  
하늘과 땅 山河 와 바다  
모두모두 우렁찬 賊聲으로.  
來日을 여(開)름이여!

차라리  
형크러진 過去  
윙윙 벗어 던지자  
이제 怒濤와 같이 밀려들  
숫한 그리움으로 하여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1986. 1. 1

## 觀光 資源을 效率의 活用 - 傍觀보다 參與를 批判보다 激勵을 -

禮山郡守 李 正 雨



親愛하는 15萬 郡民여러분 그리고 出郡人士 여러분 丙寅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希望에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가득 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計劃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激動과 試鍊을 해치며 지난 한해동안 온 國民과 出郡人士 여러분들께서 積極으로 聲援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이 地域의 많은 發展과 郡政도 알찬 結實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聲援에 대하여 재삼 感謝드립니다. 금년의 郡政은 誠實率仕로 信儀和合하여 착실한 地域開發로 先進 禮山建設을 할수 있도록 郡 산하 全公務員이 혼연 일체가 되어 自律的이고 創意的인 行政으로 住民 福祉向上과 所得增大에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住民 所得增大을 기하고져 431ha의 耕地整理 機械化 營農團 구성 및 새마을 所得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며 住民 福祉事業을 오지 地域까지 擴散시키기 위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6棟을 신축하여 무의촌을 일소할 計劃입니다. 또한 86 . 88울림의 開能과 西海高速道路 開設과 병행하여 觀光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수 있도록 禮唐貯水地 國民觀光地 開發 德山 溫泉 地區 開發 德崇山 道立公園開發等에 拍車를 가하고 중의로 변에 가로공원 및 꽃동산을 造成하여 4계절 꽃을 볼수 있는 道路로 만들어 觀光禮山의 면모를 일신할 計劃이며 특히 郡民의 體力增進과 和合을 도모키 위한 禮山 公設運動場을 造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책이 보다더 알찬 結實을 맺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의 智慧안으로는 充分하지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온 郡民과 出郡人士 여러분이 參與해서 衆智를 모아주시고 힘을 키워 주실때 우리 禮山郡은 보다더 착실하게 前進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傍觀보다는 參與를 批判보다는 激勵을 아끼지 마시고 郡政을 밀어주시고 聲援해 주신다면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알찬 郡政이 이룩되리라고 確信합니다. 다시한번 금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일 모두가 成就하시고 郡政에도 積極參與 하셔서 先進 禮山이 될수 있도록 協力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家庭에 하나님의 恩寵과 神의 加護가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和合과 團結의 世紀로

= 새 세 設計 =

- 冷酷한 國際情勢속에서 -

禮山警察署長 朱 淳 明



희망과 서기에 중만한 병인년의 새 아침!

어려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민족사에 하나의 위대한 승용의 도표를 새겨 놓으려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줄기찬 전진을 다짐했던 85년을 보내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전진을 표방하면서 우렁찬 거보를 내딛기 시작했던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부척이나 보람찬 한해였기도 했읍니다만 또한 그 보람만큼이나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언어의 침겨운 고무를 치루지 않을수 없었던 시련의 세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산꾼민은 새해의 선제와 소망을 통하여 정연과 의지를 불태우고 화합과 단결의 世紀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국은 온 세계의 경탄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줄기차게 약진의 대로를 달리고 있는 반면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남 적화의 방상을 비리지 못하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학원사태, 노사간의 분규등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였지만 우리 예산꾼은 관, 민이 단결하고 "선진조국 창조"에 솔선 참여하여 금년도에는 범죄발생과 교통사고의 감소는 물론 청소년 범죄가 직감하는 등 강축의 발전을 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예산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반공의식을 높이고 파경불순 조직을 근원적으로 척결함으로써 천동같은 대공대세를 확립하는 물론 각종 범죄예방과 청소년 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우리의 목표와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같이 하시길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 健全한 人間教育을 強化 -重點教育 具現 爲한 行政施策-

教育長 李 英 靑



親愛하는 15萬 郡民 여러분 그리고 3萬 教育家族 여러분,  
瑞氣어린 찬란한 丙寅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莊嚴한 歷史의 章이 펼쳐지려는 希望찬 새해를 맞이하여 郡民 여  
러분과 教育家族 여러분의 家庭마다 萬福이 깃드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지난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우리 教育家  
族들의 和合과 團結의 보람으로 郷土忠節의 일을 傳承하과 和行一  
致의 孝親敬老生活를 實踐하므로써 愛國愛族의 價値를 다졌고 教師  
研修의 強化 補充指導의 深化 健全한 課外生活의 展開等 多樣한  
教育活動으로 學力伸長에 顯著한 實績을 舉揚 하였음은 勿論 機動  
性 있는 體育教育을 通하여 對外的 體育競技에서 刮目할만한 成果  
等等은 發展과 躍進의 意志를 實顯한 우리 教育家族의 底力의 發  
揚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基本施設의 與件整備等 아직도 우리  
教育現場에는 未洽한 點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教育本然의 다져진  
內的 充實로 餘力을 集約하여 希望과 보람의 丙寅 새해에는 期必코  
不足을 補完하는데 渾身의 努力을 다하여야 하겠습니까.

올해는 國家의 安定을 基盤으로 經濟  
成長 社會安定等 第五 共和國의 國政指標가 더욱 알차게 다져질 것  
이며 우리 教育은 國家施策을 積極 具現하기 爲하여 國家至上의  
價値觀 定立과 自主의 工夫하는 몇몇한 韓國人을 育成하는데  
더욱 精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爲하여 郷土忠節人의 일을 傳  
承教育과 敬老孝親教育을 더욱 알차게 推進하고 教授學習 方法과  
評價方法의 改善으로 自主의 學習能力을 伸長하며 探究하는 學生  
努力하는 學生 誠實한 學生 協同奉仕하는 學生像을 確立하고 藝體  
能 讀書 特別活動教育을 通한 健全한 人間教育을 強化하고자 합니  
다. 以上과 같은 教育重點具現을 爲한 行政施策으로는

- 첫째: 研究하는 教師 工夫하는 學生의 信心으로 바른 教職風土를 造成하고,
- 둘째: 學生中心의 알찬 學校環境을 造成하고,
- 셋째: 校壇 優先의 財政投入과 問題解決 同參獎學으로 밝은 行政을 具現 하  
고자 합니다.

親愛하는 教育家族 여러분,  
그간 우리의 값진 經驗을 通해 얻은 確信은 어떠한 試鍊이라도  
뚫고 나갈수있는 不退轉의 勇氣와 可能性입니다. 忠節의 教育家族  
다운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모두가 다같이 탐과 노력으로 새해의 決  
行을 爲한 前進만이 우리의 課題입니다. 希望찬 새해 아침에 大行進  
의 우렁찬 合聲과 더불어 새마음 새決意로 充滿한 郡民과 教育家族 여  
러분의 家庭마다 萬福이 깃드시기를 다시하면 祈願하면서 앞날에 無窮  
한 榮光과 發展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 할머니 가슴에 이야기꽃을

(금상)

예산중앙국민학교 6학년 이 선 주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학교다녀왔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춤지? 어서 온” 할머니께서는 내손을 잡으시고 할머니의 따뜻한 가슴속에 넣어 주셨다. 따뜻하고도 포근한 제 입마의 품속 보다 거 정답게 느껴졌다. 할머니께서는 엄지손가락을 내 보이며, “어렸을 때에는 발이 요만하던 것이 언제 이렇게 컸누?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매일 그랬듯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할머니께 물어 놓기 시작했다. “할머니 글세 오늘은 내 친구 순미가 국 어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선생님께서 들켰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알밤을 먹었지요. 제가 조는걸 발견하고 다른 애를 시켜서 얼구리를 처르게 했는데도 눈치를 목냈거든요” 나는 이야기를 그칠 줄도 모르고 흥이 나서 조잘거렸다.

할머니는 내 손등을 쓸어 주시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줄곧 웃으셨다. 이렇듯 할머니와 정답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겨울 할머니의 육순생일 때의 일 때문이다.

부엌에서는 잔치준비로 바빠서였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안에 커다란 상이 놓여지고 상위로는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졌다. 고모할머니, 큰 할아버님, 할아버님들의 순서로 상열에 둘러 앉으셨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할머니께서 고운 한복차림으로 다소곳이 자리에 앉으셨다.

커다란 3층짜리 케익에 불이 켜졌다. 어머니께서는, “선주야, 어서 할머니 생일 축하노래 불러드려야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생들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햇빛처럼 천천히 생물처럼 드물게 오늘이 ………?’

노래소리는 온 방안에 울려 퍼졌다. 그 때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분출 되고 주르르 흘러 내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 할머니를 보자 나도 울고 싶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우시면 나도 눈물이 나요.” “아니여 너무 기뻐서 그러”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다. 나의 이 하찮은 노래가 할머니를 이렇게 기쁘게 해 드렸다니 ……

그 날 저녁 나는 할머니께 어쭈었다. “할머니, 제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우리 손녀딸 노래

가 이 세상에서 최고구 말구 암, 이 할미는 선주랑 얘기하는게 제일 즐겁지.” 하기는 밤에 잘 때도 할머니의 가슴속에 손을 살그머니 넣을라치면 할머니께서는 “다 큰게 아직도 어리광이냐?” 하시며 나와 함께 있는것을 꺾이나 좋아하시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그 날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날마다 들려드리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오늘도 내가 이야기꽃으로 할머니의 가슴에 기쁨을 드러 마음이 흐뭇하였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쁨

(은상)

양신국민학교 1학년 이혜원

“혜원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린다.” 만리 “에” 하고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누워계셨다. 나는 두손으로 등과 허리, 다리를 푹 푹 주물러 드렸다. 매일매일 이시간이면 푹 해드린다. 많이 마르신것 같다. 오늘 낮에는 약초물 개시느라고 무척 힘이드셨나보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으셨다. 화장품 언니가 우리 엄마 얼굴 맛사지 해주면 엄마의 얼굴이 반들반들 윤이나듯이 우리 할아버지께 맛사지 해주면 주름살이 좀 퍼질것 같아 난 엄마의 클드크림으로 맛사지를 해드렸다.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학교에서 100맞은 시험지를 들고 뛰어나와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나에게 많이 칭찬해 주신다.

지난번 소풍때 난 엄마가 500원을 주셨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사먹고 그대로 가져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알사탕을 사드렸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다.

며칠전에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먹도먹고 좋겠지 하신다. 그러나 언니와 나와 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안된다고 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떠보려 하신 것이다. 난 마음이 슬퍼졌다. 그래서 난 앞으로 많이많이 할아버지 버지 할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려고 마음먹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백살 아니 이백살이라도 사세요.

## 할머니께 기쁨

(은상)

덕산중학교 1~5 정희금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한다. 할머니께서는 장에 다니시며 장사를 하신다. 장사를 하시는 것이 할머니의 취미인지 연세가 70이 넘으셨어도 계속 장사를 하신다. 걱정이 되어 그만 다니시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께서는 장에 다니는것이 즐겁다고만 하신다. 나는 할머니를 좋아하지만 장집을 갖다드리는 일은 왠지 창피한 생각이 들어 하기가 싫었다.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일은 쉽지만 도중에 아는 친구라도 만나거나 버스안에서 쳐다보는 학생들.....

그러나 오늘은 하기 싫어도 할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가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셔야 했다. 나는 창피하다는 생각 뿐이었으나 그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다. 머리에 짐을 이고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러면서도 아는 친구나 만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동네 아줌마를 만났다. “안녕 하세요” “응! 할머니 장집을 여다드리는구나 착하기도 하지”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 기분도 그 순간 뿐이었다. 저 멀리서 버스는 오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나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 하셨다. 나는 뛰어야 했다. 꼭 버스를 놓칠것만 같았다.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아슬하게 버스를 탈수 있었다. 나는 짐을 버스에 싣고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버스에 탄 학생들의 눈들이 모두 내몸에 닿는 듯 하였다. 그 버스가 잠시 머무는 동안 나는 꼭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듯 하였다. 나는 그 눈들이 싫었다. 그 눈들은 나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나는 곧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다. 버스는 떠났다. 도덕시간 이었다. 그 시간에는 “경로 효친과 예절”이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는 나를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학생이야말로말로 참으로 효도하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 학생의 착한 행동을 보았읍니다. 할머니를 위해 짐을 이고 뛰는 모습은 참으로.....”

선생님께서 아침에 버스안에서 나를 보셨나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침에 버스안에서 나를 보셨나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침에 일들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듭 나를 칭찬해 주셨다. 뜻밖에 선생님께서 부터 칭찬을 받고나니 아침에 창피하게 생각했던 일은 까맣게 잊고 괜히 기분만 좋았다. 나는 금방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았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을 꼭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았다. 참 즐거운 하루였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았다.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늘 기쁘게 해 드리고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없는 삶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렇게 밤 속에서 자신을 얻을 수 있었다. 저녁때가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늘 어두워야 돌아 오신다. 나는 할머니 마중을 가려고 밖에 나왔다. 나는 마중을 가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친구가 준 말랑말랑한 제리가 바삭거리고 있었다.

나는 제리사탕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금방 할머니가 내릴 버스가 도착하였다.

나는 할머니의 보따리를 받아 들었다. 할머니께서는 무척 기뻐하셨다. 내가 손녀라서인지 어머니께서 마중 나오실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말랑말랑한 제리사탕을 꺼냈다.

할머니가 잠수시기에는 알맞은 사탕이었다.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니 더욱 기뻐하셨다.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께 재물을 부리면 으레 할머니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다.

할머니께서도 나에게 큼직한 눈갈사탕을 주었다. 입이 불복래지고 마음 또한 불복해졌다.

발걸음도 선이 나고 할머니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고 있었다.

### 경로효친 독후감 당선자 명단

성 적	성 명	원 고 제 목	학 교
금 상	이 선 주	할머니가슴에 이야기꽃을	중앙국교 6
은 상	이 혜 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쁨	양신국교 1
동 상	최 동 현	엄 마 의 격 령	신례원국교 2
동 상	이 지 영	우 리 의 할 머 니	신례원국교 5
장려상	김 자 영	엄마산소에 가던날	응봉국교 5
장려상	이 혜 숙	우 리 할 머 니	구만국교 1
장려상	김 현 경	어 머 니 의 참 사 람	양신국교 5
장려상	김 혜 진	할아버지 앓으세요	신례원국교 1

#### < 중 학 교 >

성 적	성 명	원 고 제 목	학 교
은 상	정 회 금	할머니께 기쁨을	덕산중 1-5
동 상	남 미 선	깨 멘 가 방	광시중
장려상	신 금 자	사랑의마술사 엄마아빠	광시중 3-3

#### < 고 등 학 교 >

성 적	성 명	원 고 제 목	학 교
동 상	조 명 남	할아버지 지혜	예산여고 1
장려상	정 연 구	경 로 효 친	중앙고 2-1
장려상	윤 주 은	웃어른을 공경하자	덕산고 3-6

(詩)

## 새해 표정

탁마독서회 권태입

성급히,  
두고 온 마음 헤아림은  
불투명 파스텔로 적힌  
주소없는 편지  
한해를 더듬으며  
성긴 눈(霽) 털어내는  
매달부의 습찬하루

하늘을 뚫어버리는  
코흘리게 아이들의  
자지러질듯한 웃음  
미끄럽치는 통심  
언손으로 만든  
새해 계획표  
그림일기의 첫장이었다.

동구밖, 연날리기 대회는  
가오리연, 방패연의 결승  
숫판을 넘나들며  
덩달아 실이난 복실강아지  
큰 애기들의 널뛰기  
세시풍속일의  
상기된 설빔

온정으로  
건물의 땀목 위으며  
병인년 아침  
슬기로 심어졌으니  
태고적부터 준비해 온

벽사의 힘  
상모 쓴 호둑이  
기지개를 켜다.

## 겨울 들녘

지금 들판은 희로운 목자  
어름내 땀흘리며 쫓던 양들  
겨울 채비 마치고  
양겨 찾았는데  
목자는 빈들판 홀로 서성인다.

농로마라 호르던 골가에  
마른풀설 엉겨있고  
곡식들 거뒀낸 들녘  
훈장처럼 남은 산고끝낸 뿌리  
간혹 철새들 예지어 왔다가  
휘파람소리 내며 날아간다.

여기저기 농부들의 우렁찬 고향  
달구지 발자국 끊이지 않고  
반석으로 언땅  
최춘의 풀잎  
겨울잠 자는 소리  
한해를 스के치한  
지우개없는 그림을 채색하는  
수직으로 선 목자의 정수리로  
1월의 가느다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 長篇 創作物 構想

= 새 해 設計 =

< 文 學 >

作 家 秋 湜

며칠전에 큰子息놈이 내려오라기에 멋치런 釜山에 내려가 보았다.  
海岸白沙場邊에 큼직한 아파트生活을 하고있다.  
「이房이 아버지房입니다. 苦生하지마시고 내려오셔서 孫子와 같이 제  
시도둑 하세요.」한다. 애비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자식에대해 고맙게  
도 여겨졌다. 한편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군아 하고 생각하니 서글  
픈 생각이 치밀어 건딜수 없다.  
「아직은 이 애비는 글을 쓸수있다.」하고 뿌리치고 올라왔다.

「지금은 외도를 하고계십니다.」인사소개를 할라치면 의태 익살을 내  
받는 이 항부형이 생각난다.

바로 돈이되는 放逸物을 그만하고 제 길을 찾아 순수창작생활로  
외도러가 새책의 長篇創作物을 구상해본다.

고장의 어느 골짜 溪谷村을 찾아 조용히 작품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장 文學志望人과 친숙해야 되겠다고 다지 보기로 한다.

## 墨鄉의 얼 지킬터

< 木 工 藝 >

木 工 藝 同 好 人 會 金 季 煥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따뜻한 한해를 보내고 대강  
의 1986년을 맞이하여 무던 손끝으로나마 목공예를 가르쳐주신 스  
승님의 말씀대로 한자 한자를 새기면서 깊은 회개와 죄열을 체험하  
다 보니 이젠 이것이 저의 생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목공예 동인회  
이지만 2천년대의 새 역사속에서 공예의 일군이 되기 위하여 멀고  
도 험한 길이지만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 모양도 갖추지 못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도 발  
표회라 생각하며 이곳 목향땅에 태어나 목향의 얼을 지킬것이며 끝  
없는 조각 창조에 이 몸 소신을 다할까 합니다.



## 秋史 200 周年 宿願事業

禮山 書道會 老峰 高 鳳 柱

丙寅의 해는 秋史先生의 誕辰 200 周年의 해다. 墨鄕의 고장 禮山으로서는 감해를 새롭게 해주는 해이기도 하다. 墨鄕으로서 墨香을 풍겨주는 風土를 造成해야만 되겠다고 다져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

올해만을 하고 다시 용금을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故宅 앞뜰에서 書藝 白日場을 갖어서 先生의 遺志를 이어 主體性있는 書家를 발굴하는 事業을 이룩하는데 힘을 모아야겠다.

뿐만아니라 宿願事業인 秋史記念館도 이해에 꼭 이룩하는 關係當局에서 協助를 해주시기를 부탁도 해야만 하겠다.

學藝碑는 뜻있는 우리가 세우겠다고 推進中에 있으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고장의 書家뿐 아니라 學國의으로 秋史의 實事求是 實學思想과 書藝의 主體性을 再明하여 活性的 해로 삼고 또한 秋史先生의 業을 이어받는 해로 온 힘을 모아보자.



## 新進 發掘에 힘쓸터

< 國樂 >

禮山 國樂會 李 相 萬

國樂을 活性化해서 옛內浦 國樂의 고장을 되찾아 보겠다고 온갖 心血를 쏟아준 文化院의 方針을 우리 國樂인들이 따라 가지 못했던 지난해를 反省하고 새해에는 國樂을 活性化을 期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後進들을 發掘해서 養成하는데 힘을 기우려야겠다.

그래서 고장의 文化祝祭도 우리가 앞장에 서서 活氣찬 文化의 고장을 되찾아야 겠다고 同好人들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러자면 모임을 자주 가져서 文化院에서 마련해주고 있는 國樂室에서는 國樂의 音律이 恒常끝이지 않도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任存城(只分村)土俗놀이도 미리 準備해서 名實共히 고장의 祝祭로 昇華시켜야 되겠다.

여기에는 同好人들이 和合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이들의 마음을 합쳐야만 發展도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생각해 본다.



= 새 해 設計 =

### 固有 內浦調 되찾자

< 詩 調 >

詩友會 師範 具 重 書

詩友會聯合會와 文化院의 珍貴적인 協助로 詩調競唱大會를 盛況裡에 마련 되었던 지난해를 보내면서 丙寅 새해에는 보다 알찬 大會를 구상해 본다.

自菴 金 敏先生 誕辰 500 周年을 二年 앞두고 行事를 爲한 大會가 아니고 실속있고 알찬 詩調의 眞隨를 誇示하는 全國大會에 目標를 두어야겠다.

그래서 잃었던 傳統의 內浦調도 되찾아 전차시켜 故장의 固有의 詩調를 再定立해야 되겠다.

이러하자면 詩友相互間의 和合으로 친숙해져서 힘을 다같이 모아야겠다.

### 合奏團 1 年을 보내며

< 音 樂 >

教員合奏團 ( 대륜국교장 ) 李 鍾

音樂은 그나라 文化文明의 尺度라고 한다. 1945 年 解放以後 美國의 教育使節團이 來韓當時 마지 우리나라를 後進國 未開國으로 알고 아예 音樂專門家는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生覺렸던것 보다는 音樂水準이 比較的 높은것을 보고 急히 本國으로 音樂專門家도 보내달라는 連絡을 했었다는 말을 들은적이있었다. 其當時를 回想해보면 우리 國民의 音樂水準은 낮았다. 그러나 經濟와 文化가 急速度로 發展함에 따라 音樂도 其步調를 같이 했다고 生覺된다.



내가 赴任한 學校는 거의다 어린이엔드를 組織하고 指導했었다. 그리고 其學校 職員으로 合奏團도 構成해 왔었으나 如意치 못하고 貧弱함을 免치 못했었다. 그래서 生覺 끝에 初中郡內 教員中 樂器演奏技能이 있는 教員을 會合하여 合奏團을 組織한 것이 벌써 3 年을 맞게 됐다.

其間에 練習한 보람이 있어서 教育者 大會時 儀式歌를 演奏 했었고 音樂發表에도 出演하게 되었다.

其間에 우리 音樂科 씨름을 爲해서 指導와 支援을 해주신 教育長님께 感謝드립니다.

앞으로도 新年을 맞으면 團員을 增員하고 團勢를 強化하고 더욱 努力하여 技能을 向上시킬 覺悟입니다.

끝으로 우리 合奏團을 基盤으로 삼아 郡民 여러분中에 音樂에 趣味를 갖게시킬 諸賢에 同參해 주실것을 바란다.

## 자랑스런 文化財로 矜持를 갖는다

< 寫 眞 >

寫友會 鄭 德 彰

회원간의 친목을 더욱 더 도모하여 화기 애애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가족을 동반하는 야외촬영 기회를 갖고 싶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우리 회원들의 작품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아주고 협조하여 주게 될테니까, 이 생각은 제 4회 전시회(85.12.-24)기간 중 가족들을 초청하여 회원 각자의 작품을 설명하여 주고 이해시킨 덕분에 급번 전시회가 사단의 신배님과 지방 유지 여러분들의 많은 찬사를 듣게 된 공을 오로지 내조의 덕이었다는 감사의 말을 드릴 때 얻은 생각이다.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이론강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갖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회원들도 취미활동에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은 지난 여름 난지도로 야외촬영 실습을 갔을때 어느 신입회원의 불명속에서 얻은 생각이다. 사후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장 예산을 위해 적은일이지만,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소재로 사진전시회를 갖을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유희하고 소중한 문화재가 많이있는 고장에서 나고자랐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더 내고장 예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은 군내 곳곳을 다니며 작품의 소재를 찾던중 어느 지방에 못지 않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 회원들이 마음속 깊이 느낀 것으로 내고장에 대한 긍지를 갖자는데 있다.



## 實技研修로 資質向上 圖謀

< 美 術 >

美術教育硏究會 鄭 菴

1986.4. 예산군 미술교육연구회 총회 개최  
예산군 미술교육연구회가 84년 4월에 창립총회와 더불어 발족하여 2년간 운영상황을 보면 우선 회원이 정착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동적인 경향이 있어 1986년에는 자생적인 조직 강화를 하겠다.

1986. 여름방학 ; 회원 실기연수 활동  
실기 연수물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름, 겨울방학 2주간하되 지도강사는 자체자원 인사로하고 한국화(묵화) 양화(수채화, 유화) 2개 분야로 하는데 회원의 희망에 따라 실기 연수회를 갖겠다.

1986.10; 제 2회 미술작품 전시회  
제 1회 회원작품전시회는 면밀하고 충분한 계획이 부실한 가운데 개최하여 작품의 질과 규모의 과정에서 미비한점 많았다. 제 2회 작품전시회를 앞두고 총회시 확정하여 제작기간을 충분히주고 교육자 대회 전후하여 전시회를 가질계획이다. 교육동지 여러분에게 관람시키고 싶다.

1986.11 미술교육연구회 협회 개최  
미술과 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술과 시범수업을하고 초·중학교 구분과별로 과제해결을 위한 협회를 갖겠다.



< 合唱團 >

노래 속에 愛郷과 奉仕精神 = 새 해 設 計 =

梅軒合唱團 이 경 희

85년도 어느사이 올 한해도 다갔구나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건진한 노래속에 애향과 봉사정신을 담아 예산국민의 화합과 밝은 정신  
 함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든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한 해를 마무리 한다는것은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뉘연성과 연결되는걸보면 지난 한해를 어렵게  
 보냈다는 안도감 보다는 다시오는 해를 알차고 후회없이 보낼수 있는 준  
 비와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좁은 예산 지역사회에서 합창단에 필요한 단원을 모집하다보면 항상 심  
 작한 문제는 "인재난"이 문제가 됩니다.  
 86년도에는 유능한 단원들을 입단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다 알차고  
 실속있는 합창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과 아픔을 같이 하고  
 지방문화의 발전에도 보다더 많이 기여할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합창단을 아끼고 사랑해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讀 書 >

女性다운 琢磨의 길 所望

탁마독서회 회장 김 영 숙



12월도 이제는 얼마남지 않았읍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니 85년에 그동안 치제했던 탁마독서회가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마독서회가 86년 부터는 중실의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되려  
 고 노력합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토론회와 세미나 형식을 자주 가지며 유능한 선생  
 님을 모셔 우리가 그동안 모자랐던 점들을 보강하며 독후감 시상대회를  
 가져 회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책임있을때는 연대별로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할것이며 1년에 한번있는 시화전에는 85년도에 미숙했던점을 보  
 강하며 예산에서 유일한 미혼여성들만이 모여 가지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더욱 여성적이고 참신한 글을 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문집에는 시와, 수필, 콩트, 독후감등 골고루 실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탁마의 길을 소망하며 또한 회원상호간에 친선을 위하여 등산과 체육대  
 회도배놓지 않고 할것입니다.  
 앞으로 탁마독서회가 커가는것을 여러분 모두 지켜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내고장 새해 郡政設計

성실봉사, 신의화합,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국민본위 행정구현 새마을운동완력과 주민소득증대,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증진과 주민을위한 최대의 친절과 봉사행정을 구현 선진 예산을 건설할 계획이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431ha의 경지정리와 기계화 영농단 12개소를 추가소성 총 65개의 영농단을 구성 주민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4억원을 투입 8개소에서 새마을 광역권 사업을 실시하고 국민보전 향상을 위하여 보전지소 및 보전진료소 6동을 신축 무의촌을 일소할 계획이다.

주민 편익사업을 위하여 예산천 복개공사 및 예산여중 진입로 1km 개설과 예산·삼교읍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한 기존관광지인 충의사, 수덕사, 추사고택을 연결할수 있도록 해당당지수지 국민관광지 개발, 덕승산 도립공원개발, 덕산온천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충의로변에 가로공원 및 꽃동산을 조성 4계절 꽃을 볼수 있도록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수있도록 할계획이다.

특히 군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키위한 예산공설운동장 신설 및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역점을 두고 지역 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난 1985年 新政도 決算

지난 한해는 “선진예산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해로서 오가에서 덕산면 시랑리간 국도포장을 비롯한 4개 로선의 30.8km를 말끔히 포장완료하여 읍면간 생활권을 좁히고 농산물의 신속한 출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발전에 그어느때 보다도 가속화되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하여 9개지구 1.579ha의 경지정리 사업에 6.085백만원을 투입 완료하므로서 경지정리율을 83%로 높였으며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 양수장 3개소 용수로 1개소 관장 175개소등 설치에 199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예산천복개공사에 하천개수공사, 예산읍시가지 확장공사,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해결에 총 1,725백만원을 투자하므로서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생활환경시설인 간이급수 시설 6개소, 공동변소 2개소, 부엌개량 40동, 농촌목욕탕 24동, 농촌주택개량 29동, 국민주택 60세대를 건설등에 1.175백만원을 투입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예산읍 주민의 오랜숙원이던 신희원지구 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하여 337백만원을 투입 배수관 9.2km를 매설 완료하므로서 1,300세대 7,300여명의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등 “선진예산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향 토 애

정 답 계

작사: 이 수여사

작곡: 서 복 진



### 1. 옛날-옛날 그 옛날 고려말엽 시절에

우의-종교 효도하는 형제-들이 있었네

나와-너 우리모두 대홍땅의 아들딸

조상들의 전통을 길이길이 빛내세.

### 2. 뒷산-에는 입존성 앞들-에는 우애비

서로-돕고 일-하는 우리-들이 있다네.

나와-너 우리모두 대홍땅의 아버지

내고-향의 역사를 모두힘써 만드세.

## 只分村 土俗놀이 祝祭

### 任存城下菴 大興서 묘순바위 傳說 再演



只分村 土俗놀이



우리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계승하고자 예산군 대흥면 봉수산중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묘순이 바위 전설을 마당놀이로 구성하여 재연하는 행사를 가졌다.

只分村(只分村) 토속놀이(대흥축제)라 이름한 이번 대축제는 지난 11월 9일 예산군 대흥면 동현에서 뜻있는 인사와 군단위 기관장 그리고 대흥면민의 참여를 가운데 내 고장의 전통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애郷심으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번행사의 주가 되었던 임존성묘순이 바위전설을 마당놀이화 시킨 묘순이 바위마당놀이를 마을주민과 놀이패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는 감동의 놀이마당이었다. 또한 대흥교회의 어린이합창단의 대흥의 노래 합창과 부녀농악대와 달춤은 이채를 더했다.

한편 마을부녀자들은 마련된 고유음식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인심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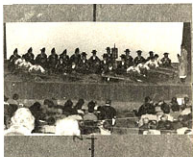
이자리에서 묘순이 마당놀이 대본에서부터 대흥축제를 마련하는데 큰 힘이되어준 이수(대흥)여사에게 한국 문화원연합회 회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많은 사관들로 부터 찬사와 축하를 받았다.

## 燕亭國樂院 招清公演 < 傳統國樂 >

### 郡內老人 招待코 傳統音律을 韻味

다사다난했던 을축년을 마무리하고 예산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문화원에서는 대진시립 인정국악원을 초청, 위안의 잔치를 하였다.

12월 16일 오후 1시 예산중앙극장에서 열린 이번행사는 국악단원들의 흥겨운 우리가락인 민요, 송무, 율춤, 국악연주, 사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00여명의 관중들을 도취시키고 환호를 받았는데 특히 마지막에 펼친 남성 4인조 사물놀이가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마당 잔치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燕亭國樂院 招清公演





내고장 예신의 문학을 진단하는 강연회가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 예산농업전문대학 시청각 교실에서 작계자승의 인사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문화원의 마련으로 열렸다.

초청강사인 추 식(작가), 방 영웅(작가), 홍성린(교수)들을 비롯한 많은 내고장 예신을 아끼는 참석자들을 우리고장의 문학운동에 대한 문제점과 인식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가의 방향 모색을 위한 많은 내용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내 지역의 주인공들의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다져보고 반성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사들은 익실하여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명주었다.



中等 高等部 兎作

<敬老孝親>

敬老孝親 思想宣揚 讀后感 施賞

경모요전 사상선양을 위한 초, 중, 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원이 주최한 독후감 및 실천수기공모 행사에서 시상자가 결정되어 지난 12월 13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경모요전사상선양 실천수기공모 시상식을 가졌는데 심사위원과 각 기관장및 지도교사와 수상자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심사위원장인 추 식(예산출신작가)씨는 국민학생들의 글 솜씨 어른들을 감동시켰다며 수상자들을 격려 축하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마친후 다과회도 가졌는데 학생들의 책임은 습관과 글을 쓰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지도교사들의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는것을 지적하였다.

## 고장 綜合 音樂祭

### 各級學校 音樂團體 參與

<音 樂>



예산지역 음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11월 21일 예산중앙극장에서는 예산종합 음악제가 열려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음악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예산지역의 음악풍토조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하모니"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행사는 국민학교 합창단의 합창, 현대무용, 고전무용, 피아노 독주, 어머니합창단, 교원합주단, 배원합창단등 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 총출동된 대잔치였다.

예산음악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있었던 이번 음악제들 기록제로 삼아 예산지역에 밝고 건전한 음악보급을 위해 군민들의 뒷바침과 성원이 또한 필요하다.



## 傳統 茶道講座

<茶 道>

### 婦女 多數 參與 試飲도

국민이 외제전감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문화원에서는 전통다도강좌 및 시음회를 가졌다. 커피같은 수입차의 소비를 줄이고 옛날 우리선조들이 즐겨마시왔던 녹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위해 열린 이번 강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10월 25일 오후 2시 영사실에 모인 직장여성 및 주부 70여명은 관심을 있었지만 막상 기회가 없어 자세히 알수가 없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전통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용을 하여야겠다며 다기셋트에 대하여도 물어왔다. 이 광재강사의 이론강좌와 잔미숙강사의 실기시범이 있은후 시음회도 겸한 이번 다도 강좌는 직접 만드는 방법과 차끓이는 방법 마시는 방법등 실기도 겸하여 직접 마실수있는 좋은 기회였다.



&lt; 寫 眞 &gt;

## 會員 各己 테마 作品展

寫友會 發表會 水準飛躍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칠수 있는 사물들을 사진기의 렌즈를 통해 예술작품을 시도해온 예산 사무회가 지난 12월 19일~22일 나흘동안 사진작품전을 가졌다.

제 4 회를 맞이하는 이번 사우회 사진전은 정 덕채회장(예산고서무과)을 비롯 11명의 회원들은 그테마를 자기 달리한 작품 40여점이 출품되었는데 작고의 노력이 엿보인 수작들이 많았다는 평으로 그 수준이 비약되었다고 한다.

취미가 다양해진 현대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우회의 발전이 기대된다.



閨秀들이 琢磨 讀書會  
詩畫展과 同人誌도 刊行

&lt; 詩 畫 展 &gt;

예산군내 거주 미혼규수들로 구성된 탁마독서회는 지난 10월 4일~5일 2일간 예산군립도서관에서 시화전을 가졌다. 그동안 성장해온 탁마독서회는 김영숙(경찰서근무)회장을 비롯한 19명의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시화전을 준비해왔던 작품 39점을 선보인 이번 시화전은 작품의 수준을 따지기 이전에 규수들의 취미활동과 함께 섬세한 여성특유의 감각과 터치를 엿볼수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한편 지난 12월 19일은 시화전에 출품했던 글을 모은 동인지「탁마」한제로 창간호를 발간하여 탁마독서회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예산문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 誠實한 作品展 보여줘

<美 術>

#### 美術教育硏究會 第1回 發表會



자 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인 미술교육연구회는 그동안 바쁜중에도 열심히 준비해온 작품들을 선보였다.

제 1회 미술교육연구회 작품전시회라 이름한 이번 전시회는 12월 15일~18일 3일간 예산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는데 교육청이 후원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 찬(금오국고 교장) 선생님의 서예작품을 비롯 20여명의 선생님들의 서양화, 한국화, 조각등 다양한 테마들로 선보인 이번 작품 전시회는 가르치며 배우는 선생님들의 성실한 자세를 엿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더욱 알찬 연구회가 되겠다고 회원들은 다짐하고 있어 주목된다.

### 李貞夏 教授 作品展

#### 傳統陶藝의 眞隨를 보여줘

<陶 藝>



지난 10월 31일~11월 7일까지 8일간 百石 李 貞夏先生 도예작품전이 예산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다.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생활을 대표하는 도자기 제작에 32년간 몸담아온 이 정하선생은 이번전시회에 다기, 정자, 분청, 생활도자기등 40여작품을 선보였

다. 한국교양 문화원 후원으로 열린 도예전에서 우리전통 도예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고도 한다.

## 40 周年 警察의 날 記念式 各 機關 및 郡民參與視 有功警察官 表彰

경찰의날 제 40 주년을 맞이하여 예산경찰서에서 각기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민주경찰로 발족한지 40 주년이 되는 이날 기념식에서 표창도 함께 수여되었는데 내부부장관상에 정완섭, 김 정구경사, 20년 근속상에 이 진호, 김 병호경사, 그리고 치안본부장상에 김 동환씨등 4명 등에게 상을 주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내조의 공로가 큰 읍파소장 부인에게 그간의 내조에 치하면서 손묵시제도 수여하였다.

민주경찰로서 장년기를 맞이한 경찰의날에 朱淳明서장은 더욱 알찬 봉사를 강조하였다.



## 어머니 體育大會

### 郡內學校 새마을 어머니會

학교새마을 어머니회 예산군지부에서는 제 2회 예산군 체육대회를 10월 26일 오전 10시 예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참여한 500명이 자습, 면, 학교의 명예를 걸고 당당히 입장을 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당당했다.

개회식을 간단히 마치고 본격기에 들어간 어머니들은 달리기 풍선터트리기, 2인3작경기를 비롯하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장기자랑인 부채춤, 탈춤, 에어로빅등을 펼쳐 참석자들의 많은 감채를 받았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져서 이날은 그동안 가사일에 바빴던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任 存 城 과 묘 순 바 위

< 登場人物 >

묘 순 이

홍 모 ( 묘순이 오빠친구 )

묘순이 어머니

묘순이 아버지

村 長

하 인

묘순이 오빠친구 1. 2

마을 사람들

만 신

1 과 장

해 설 자 :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 남쪽기슭엔 옛 성터가 보이는데 그 성이 바로 백제 최후의 항거지인 임존성이라 하는 곳이었다.

이 고을엔 예로부터 묘순이 바위라는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으니 그 내력을 볼 짝시면.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전 때는 백제시대 의자왕 640년경 융성하던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의 침입으로 국운이 날로 쇠퇴하고 있을 무렵, 충청도 위쪽에 자리한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 기슭에 아담한 마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동산리라. 이 고을에선 아기를 낳으면 쌍둥이를 많이 낳았으니, 남자 쌍둥이, 여자면 여자 쌍둥이를 낳아야만 이 고을의 만사가 형통인디 만약 남매 쌍둥이를 낳았다하면 온갖 흉역이 마을을 휩쓸어 간다하여 그중에 한아기를 죽어야 한다는 것이 법처럼 되었던 것이었으니

홍모예미 : (소반에 물을 떠받쳐 들고 조심스레 판을 돌아 중앙에 자리잡고 정성스레 빈다. 이때, 징, 북을 비나리조로 은은하게 울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전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제발 덕발 비나이다. 이 불쌍한 것을 굶어 살피사 자식하나만 짐지해 주시면 소원이 없것구면유. 천지신명님 부디,

- 홍모애비 :** (뒹집지고 천천히 등장. 조용히)  
여보 마누라, 이제 고만 들어 가구려.
- 홍모에미 :** 당신먼저 들어가슈.
- 홍모애비 :** 아 / 날춘디 감기들것어
- 홍모에미 :** 여보, 이번만은 신령님께서 꼭 우리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실것 같은 기분이들유!
- 홍모애비 :**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 인자의 정성에 하늘도 감복하셔서 꼭 점지해 주실꺼여!
- 홍모에미 :** 예휴, 그렇게만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유,  
당신도 함께 벌유.
- 홍모애비 :** 그러, 그러.  
(홍모에미의 뒤에 서서 함께 빈다.)
- 홍모에미 :**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전 비나이다.  
**홍모애비 :** 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낳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착하고 어진 백성으로 키우겠나이다.  
(징, 북소리 높아지고 두 내외가 더욱 열심히 비는 동작, 갑자기 홍모에미 쓰러져서 배를 움켜쥐고 아픈 표정을 지으며)
- 홍모에미 :** 아이고 배야, / 아이고, 아이고 배야!  
(어찌할 줄 모르다. 좋아하다. 걱정하다. 안절부절하며 편을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아이고 칠성님, 신령님, 서낭님, 터춧대감님, 계발 아무탈없이 해산하게 해주슈,  
아이구 천지신명님.
- 홍모에미 :** 응애 응애 ..... (애기 울음소리 흉내)
- 홍모애비 :** (기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애기를 안아준다)  
여보! 여보! 아들이요 아들  
아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둥둥 내 사랑, 어화 둥둥 내사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랑, 금을 준들 너를 사랑,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다,  
둥둥 내사랑 어화 둥둥 내사랑,  
(홍모애비 한참 기뻐하는 중 홍모에미 아기우는 소리를 낸다.)
- 홍모애비 :** 아니 또야! 어허!  
신령님 신령님 감사합니다요. 귀하디 귀한 자식 하나도 아니고 돌썩이나 점지하여 주시다니,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  
(기뻐하다 말고 깜짝 놀란다.)  
아니! 이게 웬일이여? 아이구 여보 마누라!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먼저 낱은 높은 고추를 달았더니 나중 낱은 높은 아주 관관하구라! 아이고.

홍모예미 : 아니 그럼 남매쌍둥이 ...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이럴수가 그렇게 지성을 드렸는데 남매쌍둥이를 낳다니, 아이고 -

홍모애비 : 여보 마누라 그만 진정하구려, 법이 그러한 걸 어찌하겠오.

홍모예미 : 안돼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기를 죽일수는 없슈

차라리 내가 죽을거유, 아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디- 죽인단 말유 안돼유 여보!

( 한참 울다가 갑자기 남편의 손을 잡으며 )

여보! 우리 이렇게 허유.

홍모애비 : 어떻게?

홍모예미 : 우리 아기가 남매쌍둥이 인지는 우리 밖에 모르잖유.

홍모애비 : 그... 그렇지!

홍모예미 : 그러니- 여자애를 남장을 시켜서 키우면 우리 애들을 남자쌍둥이로 알 것 아  
니.

홍모애비 : 거-참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만약에 말어

이 사실을 동네 사람이나 관가에서 알게되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한단 말어.

홍모예미 : 아님, 난 해낼 수 있슈, 감쪽같이 잘 키울 수 있다가유.

걱정말유 여보, 그렇게 허유 예 -.

홍모애비 : 어찌것이, 그러 우리 그렇게 힘써보자구.

홍모예미 : 여보! (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운다. )

## 2 과 장

【노 래】 만첩청산 숲들어가서 회양복한가지 찍었구나  
서른두짝 장기만들이 장기일편을 두어보자  
한수한수 유탕숙이요 초나라조차 조맹덕이라  
이차지차 관운장이요 이포저포 여포보다,  
코끼리상자 조자룡이요 말마자 마초로다,  
양사로 모사를삼고 오졸로 군졸로 삼아  
양진이 상첩하니 적벽대전이 예로구나  
조조가 대패하여 화용도로 도망할계  
관운장의 후덕으로 조맹덕이 살아만 가누나.

친 구 1 : 야! 우리 빨리 나무해 놓고 놀자 이!

친 구 2 : 그러!



(노래)

일으하세 일으하세 힘을내어 일으하세  
어떤사람 팔자좋아 호의호식 하건마는  
아내팔자 어찌하여 이런고생 못면하나  
살자하니 고생이요 죽자하니 청춘이라  
일으하세 일으하세 힘을내어 일으하세

- 친 구 1 : 참 그런디 말여, 요 산 밑에 사는 힘장사 쌍둥이 말여  
개네들 참말로 이상허이? 생긴 건 똑 같은디 그중 동생 묘순이 말여,  
어딘지 모르게 꼭 기지배 갖지 않나?
- 친 구 2 : 아, 큰일날 소리 허들말여, 기집엔 무슨 기집애냐? 아, 쌍둥이 개네들 힘세  
기로 운동네가 자자헌디, 기집이면 그렇게 힘이 장사여/바위도 번쩍든다고허든디
- 친 구 1 : 아녀, 내가 가끔말여 옆에서 가까이 보면 얼굴이 기집애 같이 고왔단 말여, 난  
가끔 착각도 했었다니께.
- 친 구 2 : 물때 맞아 죽기 싫으면 흰소리 작작하고 일어나 허,  
해안에 나무를 한짐허서 대문안을 들어서야 헐거야녀,  
(이때 홍모와 묘순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등장한다.)
- 홍 모 : 어이 친구들/나무를 많이 했나 /
- 친 구 1 :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디니, 저너석을 진짜오네.
- 친 구 2 : 어이 니들이구나, 인자 나무하러 오냐?
- 홍 모 : 응, 나무 많이들 했나?
- 친 구 : 이, 다했다야, 인자 쉼려구할 참이여,  
근디, 왜이리 늦었냐?
- 묘 순 : 응, 우리는 벌써 땀감 다해 왔어, 오늘은 점심을 하도 배 부르게 먹어서 소화도  
시키고, 놀겁해서 올라온 거여.
- 친 구 1 : 아, 그럼 우리 오랫동안 만났는다, 닭 싸움놀이 하며 놀까.
- 친 구 2 : 그기 좋지,  
(홍모, 묘순이 주춤거린다.)
- 친 구 1 : 야, 얼른와, 힘장사들이 췌췌하기는 ...,  
(홍모는 할 수 없이 온다.)  
묘순이 너는 안 할래?
- 친 구 1 : 사내 너석이 뭘 배고 그러냐, 이리와서 같이 놀자.

(묘순이 어쩔수 없이 닭싸움놀이를 한다. 한참 놀다가 친구 하나가 묘순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묘순이 몸위에 었어진다.)

묘 순: 엄마! 나몰라 (소리치며 도망한다.)

친 구 1: 정말로 기집애여 기집애.

(친구 2는 멍하니 서 있고, 흥모는 성난 표정으로 친구들 보다가 달아난 묘순이를 쫓아간다.)

친 구 1: (친구 2 보고)

야! 이... 이러구 있을게 아녀.

빨리 관가에 가서 알려야 혀!

친 구 2 그... 그러, 그러자.

### 3 과 장

(사또, 이방, 친구, 마을사람이 춤추며 나온다.)

사 또: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보이라.

이 방: 어서 아뢰어라.

친 구 1: 예, 저기 저 아래 동네에 힘 잘쓰는 장사 쌍둥이가 있는뉘.

전부터 의심을 하였사오나, 힘이 장사라 여자인줄 몰랐으나 오늘에야 그중 동생인 묘순이가 여자인 것을 알게되어 사또 전에 아뢰웁니다.

사 또: 아니! 그게 정말이나?

친 구 1: 예. 같이 나무하다 닭 싸움을 하고 노는 중에 묘순이가 넘어져 바지춤이 내려갔는디 있을게 없었습니다요.

이 방: 아뢰웁기 황송하오나 소인이 생각하기로 그 일로 인하여 이 고을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 쫓던 땅이 황폐해지고 마을에 흉액이 닥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들을 당장 잡아들여 문초하심이 옳을줄 아웁니다.

사 또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여봐라!

마을사람·이방: 예이

사 또: 동산리 쌍둥이 형제와 그 부모를 당장 잡아 대령하였다./

이방·마을사람: 예이 (관 밖으로 나가 흥모와 묘순 부모를 끌고 들어온다.)

사 또: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렸다./

아 버 지: 사또 나오리. 저희들이 죽을죄를 지었사웁니다./

부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 또 : 저런 고이안 것들을 봤나. 너희들이 마을의 범도를 어기고 남매 쌍둥이를 길렀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느니라!

이 밤 : 그렇사옵니다. 사또! 이 고을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마땅히 한 아이를 죽여야 할 줄 아뢰웁니다. 사또!

어 머 니 : 사또! 저희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요. 허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미 장성하였사오니 제발 죽음만은 면하게 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동네사람 : 사또, 아니되웁니다. 자식이 귀한 줄은 어느 부모가 모르오며 자식이 죽는 것은 어느 부모가 원하오리까만은 이 고을은 저들로 인하여 신의 노여움을 샀기에 좋은 땅도 황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여 범대로 행하는 것이 옳을 줄 아뢰웁니다!

사 또 : 그러면 법에 따라 할수……

어머니·아버지 : 사또 —

어 머 니 : 저희들은 늙도록 자식이 없다가 온갖 정성을 다 드려서 신령님이 점지하사 그런 액운을 얻었사오니 불쌍한 저희 부부를 생각하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 또 : 범을 어겨 신의 노여움을 샀고, 그대들도 아다시피 마을은 가난에 찌들어 있고, 일이 그러하니 쌍둥이중에 하나를 희생하여 액운을 없애야 할 것이요!

어 머 니 : 사또! 액운과 가난이 어찌 저 애들 때문이란 말입니까!  
오늘날까지 어렵게 키운 자식입니다. 모두 다 소중한데 그중에 누구 죽이오리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사 또 : 어허! 참.

동네사람 : 부모된 도리로서야 어느 부모가 죽음앞에 자식들을 내치오리까마는 불쌍한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소서 사또.

사 또 : 어쩔 알았다.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죽일 방도를 말하여라!

이 밤 : 쌍둥이 형제는 동네에서도 이름난 장사들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 소인의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우리 마을을 위하여 힘겨루기를 시켜 지는 편을…….  
그러면 죽는 사람도 여한이 없을 줄 아웁니다!

사 또 : 오—, 그것참 묘안이로고!

그러면 내 명대로 하여라.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이 잦아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본관은 우리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봉수산에 성을 쌓아 튼튼히 할 계획인데 쌍둥이 둘로 하여금 하나는 성을 쌓도록 하고 하나는 무거운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 오도록 하라. 그래서 먼저 내명을 빨리 시행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도다.

- 모든사람 : 사또, 좋은 생각으로 아뢰웁니다.  
(어머니, 아버지 흥모와 묘순이를 부둥켜 안고 운다.)
- 오빠 : 어머니 진정하슈. 천지신명께서 내리신 운명이니 그 누굴 탓하겠슈.  
너무 걱정 마시고 부디 편히 계십시오 /
- 어머니 : 그래 제발 조심해서 다니 오거라. 그리고 꼭 일찍 돌아와야 한다. /
- 오빠 :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묘순이란 남고 퇴장)
- 묘순 : (성을 쌓기 시작한다.)  
아 / 이 성을 언제 다 쌓아논단 말이나.  
아 / 하늘이시여,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한참을 운다.)  
안돼, 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빨리 성을 쌓아야지!  
(어머니, 묘순이와 서울쪽을 보며 등장)
- 어머니 : 묘순이는 억척으로 성을 거의 쌓아가는데 흥모 애는 왜 이리 늦는단 말이야.  
이왕지사 둘 중에 하나라면 딸보다 아들자식이 살아야 하겠는데 묘순이는 성을  
다 쌓아가는데 이 녀석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이고 불쌍한 녀석-,  
(묘순이와 서울쪽을 번갈아가며 보며 운다.)
- 묘순 : 아휴! 더워. 이제 문만 달면 완성이구나 /
- 어머니 : 아! 이일을 어쩐다지. (한참 생각하다)  
그래! 밥을 지어야겠다. 묘순이는 종콩밥을 좋아하니 종콩밥을 지어주어 시간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구나!  
(어머니는 부레나케 밥을 지어 묘순이한테 들고 간다.)
- 어머니 : 묘순아! 묘순아! 내가 좋아하는 종콩밥을 지어왔다.  
배고프지 자! 어서 먹고 하거라.
- 묘순 :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다 하고 먹을게요.
- 어머니 : 묘순아! 밥이 다 식겠다. 배가 고프고 지쳤을 테니 얼른 먹고 하렴 /
- 묘순 : (할 수 없이 다가 오면서)  
네! 어머니 그럼 잘 먹겠어요.  
(묘순이 서서 급히 먹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을 설게 지었는지 먹기가 힘들  
다.)  
어머니 밥이 설어서 씹기가 무척 어려워요 /
- 어머니 : 그... 그래, 내가 배가 고프니까 급히 해오느라고 그랬나보다.  
꼭꼭 씹어 먹어라.

(자꾸 뒤돌아 보며 한숨짓다가 눈이 커진다.)

(이때 멀리서 홍모의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묘 순 : (밥을 먹다가 놀라 떨어뜨리며)

아니! 오빠가! 난 문만 닫면 되는데. 어머니!!

아! 이 종콩밥이 원수로구나 이 종콩밥만 먹지 않았어도 문을 닫을수 있었을텐데.....

(이때 홍모가 등장하며 반갑게 어머니를 끌어 안는다.)

어머니 :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 홍모야!

오빠 : 네/어머니 무사히 돌아왔어요. 어머니 그런데 묘순이는.....

(묘순이는 울고 서 있다. 이때 마을사람, 사또, 이방, 친구 1 등장한다.)

동네사람 : 아니 묘순이 오빠 홍모가 먼저 돌아왔다면?

묘 순 : 오빠, 제가 젖어요. 잘못했어요. 부디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  
해요. 어머니! 아버지! 소녀 하직인사 드립니다!

부 모 : 묘순아/묘순아/불쌍한 것 우릴 용서해라! 흑흑.....

오빠 : 묘순아-

묘 순 : 저 종콩밥만 아니었다면 난 살수 있었는데,

오빠 저 바위를 집어서 저에게 던지세요! 어서 죽이세요!

오빠 : 안된다. 안되어. 내가 너를 어떻게 -. 안돼!

어머니 : 아이구 하나님.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여 주시요!

묘 순 : 오빠 어차피할수 없어요 운명이요 제 운명이외다 어서 죽여주시요!  
어서! 오빠!

오빠 : 묘순아.

묘 순 : 오빠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부디 안녕히.

오빠 : (한참 망설이다 옆에 있는 바위를 던진다.)

에잇! 묘순아 용서해라. 묘순아 네 대신 황천길에 간 너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 하리라.

오빠·부모 : (호느킨다.)

마을사람·친구 : 정말 안타까운 일이로구먼!

안됐어. 우리 묘순이를 위해 넋풀이나 해 주세나!

모든사람 : 좋지/그러!

(만신 나오고 넋풀이 굿을 한다.)

【해설】 이렇게 남매 생동이라는 죄로 죽음을 당한 묘순은 바위에 눌러 죽었으며, 지금도  
그 바위를 두드리며 "묘순아, 묘순아, 너는 무엇이 원수냐?" 라고 물으면 "나는  
종콩밥이 원수다." 라는 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사람 : 사또, 좋으신 생각으로 아뢰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홍모와 묘순이를 부둥켜 안고 운다.)

오빠 : 어머니 진정하슈. 천지신명께서 내리신 운명이니 그 누구 탓하겠슈.  
너무 걱정 마시고 부디 편히 계십시오!

어머니 : 그래 제발 조심해서 다녀 오거라. 그리고 꼭 일찍 돌아와야 한다!

오빠 : 예, 잘 알았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묘순이만 남고 퇴장)

묘순 : (성을 쌓기 시작한다.)

아! 이 성을 언제 다 쌓아논단 말이나.

아! 하늘이시여,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한참을 운다.)

안돼, 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빨리 성을 쌓아야지!

(어머니, 묘순이와 서울쪽을 보며 등장)

어머니 : 묘순이는 억척으로 성을 거의 쌓아가는데 홍모 애는 왜 이리 늦는단 말이야.  
이왕지사 둘 중에 하나라면 딸보다 아들자식이 살아야 하겠는데 묘순이는 성을  
다 쌓아가는데 이 녀석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이고 불쌍한 녀석-.  
(묘순이와 서울쪽을 번갈아가며 보며 운다.)

묘순 : 아휴! 더워. 이젠 문만 달면 완성이구나!

어머니 : 아! 이일을 어쩐다지. (한참 생각하다)

그래! 밥을 지어야겠다. 묘순이는 종콩밥을 좋아하니 종콩밥을 지어주어 시간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구나!

(어머니는 부레나케 밥을 지어 묘순이한테 들고 간다.)

어머니 : 묘순아! 묘순아! 내가 좋아하는 종콩밥을 지어왔다.

배고프지 자! 어서 먹고 하거라.

묘순 :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다 하고 먹을게요.

어머니 : 묘순아! 밥이 다 식겠다. 배가 고프고 지쳤을 테니 얼른 먹고 하렴!

묘순 : (할 수 없이 다가 오면서)

네! 어머니 그럼 잘 먹겠어요.

(묘순이 서서 급히 먹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을 설게 지었는지 먹기가 힘들  
다.)

어머니 밥이 설어서 씹기가 무척 어려워요!

어머니 : 그... 그래, 네가 배가 고프니까 급히 해오느라고 그랬나보다.  
꼭꼭 씹어 먹어라.

(자꾸 뒤돌아 보며 한숨짓다가 눈이 커진다.)  
(이때 멀리서 홍모의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묘 순 : (밥을 먹다가 놀라 떨어뜨리며)  
아니! 오빠가! 난 문만 달면 되는데, 어머니!!  
아! 이 종풍밥이 원수로구나 이 종풍밥만 먹지 않았어도 물을 달을수 있었을텐데……  
(이때 홍모가 등장하며 반갑게 어머니를 끌어 안는다.)

어머니 :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 홍모야!

오빠 : 네! 어머니 무사히 돌아왔어요. 어머니 그런데 묘순이는…….  
(묘순이는 울고 서 있다. 이때 마을사람, 사또, 이방, 친구 1 등장한다.)

동네사람 : 아니 묘순이 오빠 홍모가 먼저 돌아왔ادم?

묘 순 : 오빠, 제가 젖어요, 잘으셨어요. 부디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  
해요. 어머니! 아버지! 소녀 하직인사 드립니다!

부 모 : 묘순아! 묘순아! 불쌍한 것 우릴 용서해라! 후후………

오빠 : 묘순아~.

묘 순 : 저 종풍밥만 아니었다면 난 살수 있었는데,  
오빠 저 바위를 집어서 저에게 던지세요! 어서 죽이세요!

오빠 : 안된다 안되여, 내가 너를 어떻게~, 안돼!

어머니 : 아이구 하나님, 이 못난 예미를 용서하여 주시요!

묘 순 : 오빠 여차피할수 없어요 운명이요 제 운명이외다 어서 죽여주시요!  
어서! 오빠!

오빠 : 묘순아.

묘 순 : 오빠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부디 안녕히.

오빠 : (한참 망설이다 옆에 있는 바위를 던진다.)  
에잇! 묘순아 용서해라. 묘순아 네 대신 황천길에 간 너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 하리라.

오빠·부모 : (흐느킨다.)

마을사람·친구 : 정말 안타까운 일이로구먼!  
안됐어, 우리 묘순이를 위해 넋풀이나 해 주세나!

모든사람 : 좋지!그러!  
(만신 나오고 넋풀이 굿을 한다.)

【해설】 이렇게 남매 생동이라는 죄로 죽음을 당한 묘순은 바위에 눌러 죽었으며, 지금도  
그 바위를 두드리며 "묘순아, 묘순아, 너는 무엇이 원수냐?" 라고 물으면 "나는  
종풍밥이 원수다." 라는 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 禮山郡廳 消息 ( 4 / 4 分期 )

- 10. 5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 7 주년 기념행사
- 25 문화재 보호 캠페인 행사를 수덕사에서 200명 참석실시
- 29 관내노인 80명에 대하여 경노 관광실시
- 29 공직자 건강해실 특별 정신 교육실시
- 30 지역방위 협회의 개최
- 31 농도배양 사업 촉진대회를 신양면 불원리에서 이청우군수  
수 1 400여명 참석거행
- 11 2 제 9 회 육립의날 행사 덕산면 둔리에서 실시
- 7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전수식
- 8 가족계획 촉진대회 개최
- 9 의용 소방대원 간부 간담회
- 13 산물진화 훈련
- 15 겨울철 화재 예방을위한 방화관리자 회의
- 19 신양면 만사리 보건진료소 개소식
- 22 사회 정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547명이 참석한 가  
운대 마을존경 교육
- 28 제 11 차 안보 정세보고회 개최
- 12 4 소비절약 국산품애용 촉진 협의회
- 4 부읍면장 회의
- 9 평시면사무소 청사준공식
- 11 여은 모니터 간담회
- 11 평시면 시초정리 보건진료소 개소식
- 13 지역행정 협의회 개최
- 23 체육회 총회
- 23 지역총화 협의회
- 24 85 군정 결산보고 대회
- 31 85 년도 종무식

### 禮山郡廳 人事移動

姓 名	新 任 地	前 任 地	月 字
李 哲 燾	문화공보 실장	예산읍 부읍장	10.10
成 殷 慶	천원군 성거읍 부읍장	예산군청 행정계장	10.10
申 允 植	내무과 행정계장	내무과 기획 예산계장	10.15



## 禮山文化院 日誌 ( 行事 및 事業 )

10. 4 탁마독서회 시화전 (군립도서관)
- 16 당면한 운영상황과 지분촌 토속놀이 축제 및 내고장 문화논단에 대한 이사회 개최
- 19 내고장 문화 논단 강연회를 농진대학 시청각 교실에서 개최 (초청강사 작가 추 식, 방 영웅 과 홍 성렬교수)
- 25 전통다도 강좌 및 시음회
- 30~11. 7 이 정하선생 도예 작품전
- 11.1 김 증식선생의 강연회 (작품을 통해 본 한국의 여류와 그사상)
- 9 대흥 지분촌 토속놀이 축제를 대흥면 봉헌앞 마당에서 개최 (대흥면민과 군단위 기관장 다수참석)
- 21 예산 종합 음악발표회 (중앙극장)
- 29~12.2 모아화실 작품전시회
12. 8 경로효친사상 선양실천 수기공모의 작품심사 (심사위원:작가 추 식, 중등교사 이 재근 정리다모, 한 연희교사)
- 13 경로효친사상 선양 실천수기공모 입선 시상식 및 입선자와 심사위원, 지도교사 및 고장의 기관장과의 문학 좌담회
- 12.13~15 비아화실 작품전시회
- 16 연정국악원의 초청공연을 예산중앙 극장에서 열고 노인들을 위로
- 12.13~15 예산 미술교육연구회원 작품 전시회
- 17 배헌합창단 정기발표회 (제 7 회)를 예산극장에서 개최
- 19 탁마독서회원 독후감, 수기, 시등의 회원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19-22 제 4 회 예산사우회 사진전시회

## 編輯後記

- 丙寅 세해가 밝았다. 歲拜를 드린다.
- 200年前 1786年 6月 3日是 고장뿐 아니라 이 나라를 빛내준 偉大한 實學者요 金石學者이며 獨創的 書藝家이신 秋史 金正喜先生의 誕辰의 해다.
- 無爲로 넘길수가 없는 해이기에 서둘러 于先 新年 特輯이라고 엮어 보았다.
- 고장의 宿願事業인 秋史記念館과 故宅 잔디 廣場에서 書藝白日場을 꼭 이룩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關係當局과 뜻있는 人士의 協助를 渴求하면서……………
- 特輯을 엮는데 힘이 되어준 崔 完秀 教授, 李 佑成 教授에게 感謝드린다.
- 박봉에서도 李 啓贊 鄉友가 院報刊行에 보탬이 되라고 20萬 원을 보내준 愛鄉心에 고마움을 이에 밝혀둔다.

( 李 恆 馥 )

季 刊

禮山文化院報

1986年 1月 1日 發行  
1月號(通券8輯)

---

發行人兼  
編輯人 李 恆 馥

---

發行人  
忠南 禮山郡 禮山邑 禮山里  
社團 禮山文化院  
法人  
電話 2-2441

---

印刷處 光明印刷社  
(禮山) 2-4102

---

非 賣 品

---

